

김관영 지사, 우기·폭염 대비 농업현장 점검

김 지사, 부안·김제 잇따라 방문 수리시설 배수 운영 실태 점검 농경지 침수 예방 대응 강화 가축 피해 최소화 대응 주문

전북도는 17일 본격적인 여름철 우기와 폭염에 대비, 부안군 농업생산기반 시설과 김제시 축산농가를 방문해 재해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권익현 부안군수, 이현서 김제부시장,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장 등 관계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먼저 부안군 하장지구 수리 시설개보수 사업 현장을 찾아 우기 전 공사 추진 상황과 재해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특히 배수시설 운영 상태와 안전관리 실태를 살피는 한편 집중호우 시 농경

지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시설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했다. 이어 김제시 젓소농가를 방문해 폭염 대응 상황을 확인했다. 냉방장치와 급수시설 운영 상태와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여름철 고온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와 가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도는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농업 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을 강화

하고 있다.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폭염 대응 시설 지원과 가축재해보험 가입 확대, 폭염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등 피해 예방 대책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집중호우 시 농경지 침수를 막고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중요 시설이다”며 “철저한 사전 점검과 관리로 농업재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장정철 기자

<1면에서 이어서>

반도체·ICT 제조업 중심의 대만 신주 과학단지는 R&D 기능과 직주근접 주거 환경, 산·학·연 연계 구조를 결합해 신주현·신주시의 청년인구(20~34세) 비중(18.5%)이 대만 평균(18.2%)을 상회하는 젊은 인구구조를 보였다.

이에 반해 미 북버지니아 라우던 카운티는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의 대규모 데이터센터가 집적되었음에도 청년 인구 비중(15.9%)이 미국 평균(20.1%)보다 4.2%p 낮았다. 이는 자동화에 따른 제한적 고용 창출, 주거비 부담·소음과 같은 정주 저해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됐다.

이전 연구위원, 김사백 선임연구위원은 “두 사례 비교를 통해, 대규모 신산업 투자라 하더라도 산업 유형과 고용 구조, 정주환경과의 연계 여부에 따라 청년인구 유입 효과는 크게 달라진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통계 분석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17개 시도 데이터를 활용한 패널 데이터 분석 결과, 첨단기술산업 집적 자체보다 청년 고용률, 주택보급률, 도시공원 조성면적 등 고용 및 정주환경 요인이 청년 유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새만금 신산업 투자를 청년인구 유입으로 연결하기 위해 산업·고용·정주환경을 동시에 고려한 통합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현대차9조 투자 효과여부 '주목' 해외 사례 비교 분석 결과 발표 고용·주거·교통인프라 유입 좌우 “산업유치·생활 기반 함께 갖춰야”

현재 전북은 주택 보급률(전국 5위), 도시공원 조성면적(전국 3위) 등 전반적인 정주환경은 양호하나, 청년 고용률은 38%로 전국 평균(45%)을 하회하며, 생활 인프라가 전주·군산·익산 등 일부에 편중되어 새만금 일대의 생활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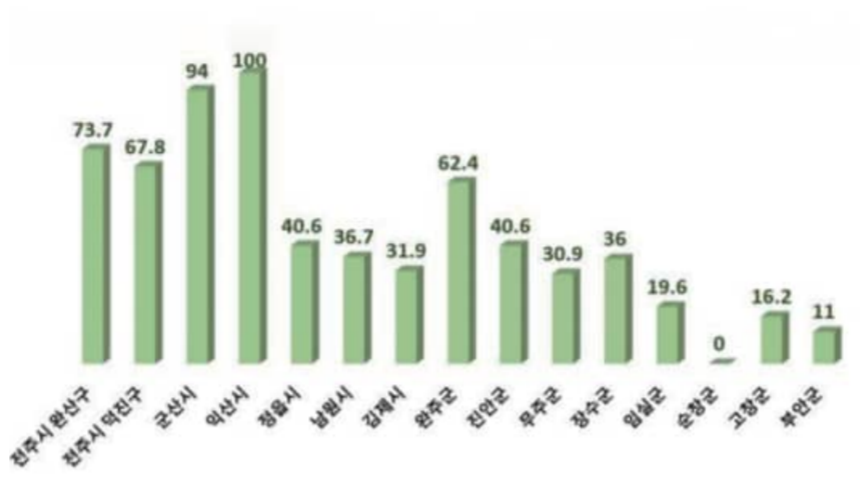
이에 연구진은 청년 유입부터 체류, 장기 정착을 이끄는 전 과정 설계 방안으로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첫째,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 내 청년주거단지 조성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는 주거, 교육, 상업, 공공, 녹지 기능을 포함한 복합도시로 계획되어 있어 청년층의 초기 체류와 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거점으로 활용 가능하다. 향후 청년 1인 가구, 호기 취업자,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코리빙, 공공임대, 직주근접형 주거, 생활SOC 연계형 청년주거 특화구역을 선제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생활 서비스 연계 광역 교통망 구축

새만금 내부에 모든 생활서비스를 단



전북 시군별 정주환경 점수 현황 <사진=전북연구원>

기간에 구축하기 어려운 만큼, 군산·김제·부안·전주·익산 등 기존 거점도시와 새만금을 연결하는 생활권 연계 전략이 요구된다. 통근·통학, 의료, 문화·여가, 소풍 등 청년의 일상생활 수요가 광역적으로 충족될 수 있도록 광역버스, 수요응답형 교통, 철도·환승체계 등을 단계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셋째, ▲산업 투자 연계 단계별 정주·인력양성 체계 구축

새만금 신산업은 고숙련 기술인력 수요가 높은 분야인 만큼, 투자 유치가 지역 내 청년 정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인력양성과 함께 주거·교통·생활서비스 등 정주 기반을 단계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투자 착공 이전에는 단기 체류형 주거와 생활교통, 맞춤형 교육 기반을 마련하고, 이후 현장실습·인턴십·

채용연계, 청년주택, 의료·돌봄·커뮤니티 서비스, 장기 정착 지원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연구진은 “새만금 신산업 투자는 전북 청년인구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지만, 첨단산업 유치만으로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청년이 새만금에서 일하고, 이동하고, 생활하고, 가족을 형성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을 산업 투자와 같은 속도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주거단지, 생활 서비스 연계 광역 교통망, 산업 투자 연계 단계별 정주·인력양성 체계가 맞물릴 때 새만금 투자 효과가 전북의 청년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전북도, 먹거리 속의기구 참여 도민 모집

내달 6일까지 신청 접수 지난해 16건 정책 의제 발굴

전북도가 도민이 직접 지역 먹거리 정책을 논의하고 제안하는 2026년 먹거리 속의기구 참여자를 모집한다.

도는 오는 7월 6일까지 지역 먹거리 정책에 관심 있는 17세 이상 도민을 대상으로 2026년 먹거리 속의기구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먹거리 속의기구는 도민이 지역 먹거리 현안을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정책 참여기구로,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먹거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운영된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운영된 속의기구에서는 총 16건의 정책 의제가 발굴됐으며, 현재 전북자치도 먹거리위원회 분과별 논의를 통해 정책 방향이 검토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규모를 확대해 총 90명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참여자 20명과 지역 먹거리 활동가·전문가 20명에 더해 신규 참여자 5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 과정에서는 지역, 연령,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17세 이상 도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참여 희망자는 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최종 선발된 참여자들은 7월 사전 교육을 시작으로 8월과 9월 워크숍 및 현장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이후 10월 전체회의를 통해 정책 제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발굴된 정책 의제를 심화 논의하는 한편 신규 의제를 추가 발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먹거리 분야 전문가와 지역 활동가도 함께 참여해 정책 제안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에 대해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먹거리 속의기구는 도민이 지역 먹거리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참여의 장”이라며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윤준병 ‘직장 내 괴롭힘 셀프조사 개선법’ 대표 발의

2차 피해·보복 우려 해소 초점 사용자가해 땀 노동부 직접 조사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인 경우 사용자가 조사 과정에서 전면 배제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접 조사하도록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직장 내 괴롭힘 셀프조사 개선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용자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를 받은 사용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사용자 가 직접 괴롭힘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신고 접수와 조사를 사용자 스스로 맡게 되는 모순이 존재해 왔다”며 이 같은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때문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노동자에 대한 2차 가해나 사각지대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또한 법적 강제력이 부족해 여전히 사용자 조사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윤 의원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 노동자가 고용노동



윤준병 의원

부에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접 신고 접수와 조사를 담당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사용자를 철저히 배제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인 사용자의 이른바 셀프조사를 하는 구조적 모순을 해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의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조사와 적절한 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건전한 직장 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 의원은 “건전하고 대등한 직장 문화를 만드는 데는 노사가 따로 있을 수 없으며, 괴롭힘 행위의 주체가 누구든 동일한 기준으로 엄정하게 조사받아야 마땅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제도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노동자가 어떠한 보복의 두려움도 없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안전한 노동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목기자

전북자치도, 아동학대 대응 ‘원팀’...협력·연대 강화

14개 시군·경찰·실무자 160여명 대응인력 연대강화 워크숍 개최 기관 간 소통·협력 네트워크 구축

전북도는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과 공동으로 17일, 18일 양일간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아동학대 대응인력 연대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는 도내 14개 시군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학대전담요원,

아동학대전담경찰관(APO),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등 아동보호 현장 대응인력 160여 명이 참여한다.

아동학대 대응 업무는 지자체와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분야로 현장 대응인력의 전문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

이에 도는 대응인력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는 한

편,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소진을 예방하기 위해 이번 워크숍을 마련했다.

워크숍은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 기관 간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한 팀빌딩 프로그램 등으로 운영된다.

특히 다양한 기관 종사자들이 상호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히고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도는 앞으로도 현장 대응인력의 전문

성 향상과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보호환경 조성에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미숙 전북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장은 “아동학대 대응은 어느 한 기관만의 노력으로는 이뤄질 수 없는 일”이라며 “이번 워크숍이 현장 실무자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협력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광고 문의 063-282-9601 / 구독 문의 063-282-9603

생활 속 안전수칙 실천해요!

횡단보도 이용 주·정차된 차량 사이로 무단횡단 금지	불법 주·정차 금지 소방차, 응급차 등 긴급차량 진입에 방해	이륜차 안전모 착용 보호대까지 착용하여 더욱 안전하게!	문어발식 콘센트 금지 화재 위험! 분리하여 사용하자	중간밸브 잠그기 가스레인지 장시간 사용 시 환기도 필수!

AI·가상융합·미디어테크 미래산업 본격 추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AI 테스트 지원 장비 갖춘 AI 신뢰성 실증사업 공간 구축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지역 특화산업과 첨단기술을 연계한 실행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진흥원은 참여기관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ITA)와 함께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전주신산업융복합지식산업센터 4층에 사무공간과 AI 테스트 지원 장비를 갖춘 'AI 신뢰성 혁신 실증사업' 공간 구축을 본격화한다. 해당 시설은 지역기업의 AI 제품과

서비스가 산업 현장에서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 품질, 알고리즘 안정성, 위험요인, 서비스 적용 가능성 등을 점검하고, 시험·검증·컨설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지역 AI 신뢰성 거점 역할을 맡게 된다. 특히 농생명·바이오, 모빌리티, 신재생에너지, 피지컬 AI 등 지역 특화산업 중심의 AI 신뢰성 검증·확산 모델을 개발해 전북만의 차별화된 AI 신뢰성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업 지원도 본격 추진된다. 진흥원은 오는 7월까지 TAI(Trustworthy AI) 프로젝트 지원사업 20개사를 모집·선정하고 이후 11월

까지 AI 신뢰성 향상 지원(검·인증) 10건과 개발 전(全) 주기 AI 신뢰성 확보 지원 10건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 내 인공 지능 기술 및 제품을 보유한 기업과 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원하는 기업이다. 가상융합 분야에서는 지난 2월 선정된 가상융합산업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서비스 제작·실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진흥원은 또 2028년 준공 예정인 G-Town을 향후 지역 가상융합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활용해 초기 창업기업부터 선도기업까지 활용 가능한 고성능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미디어테크 분야에서는 올해 말 완공

예정인 전주 독립영화의 집 내 'AI 기반 VFX 후반제작 지원시설'을 구축하고, 지역 영화·영상 창작자를 위한 기술지원원을 확대한다. 특히 전주 독립영화의 집에는 색보정실, 전주음향마스터링스튜디오, VFX 후반제작 지원시설이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 전주시는 전국 최초로 공공에서 영화 후반제작 전 과정을 한 공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원스톱 후반제작 지원체계를 갖추게 된다. 여기에 진흥원은 한국어 영화효과음원 플랫폼은 AI 기반 음원 검출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정소민 기자

'제26회 불조심 어린이마당' 학급 모집

관내 초등학교 대상 화재·재난·생활안전 학습

전주덕진소방서 권기현 서장이 '제26회 불조심 어린이마당' 참가 학급을 모집한다. 불조심 어린이마당은 소방청과 한국화재보험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교육부와 11개 손해보험회사가 후원하는 전국 단위 안전교육 행사다. 어린이들이 화재·자연재난·생활안전에 관한 기초지식을 학습하고 평가를 통해 익힐 수 있도록 마련됐다. 참가 대상은 관내 초등학교 4학년 또는 5학년 학급이며, 재적인원 10명 이상인 학급 전원이 참여해야 한다. 동일 학교 내 복수 학급 참가도 가능하며, 학급 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학년 통합 등

을 통해 참가할 수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학급은 오는 6월 30일까지 한국화재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참가 학급에는 어린이용 안전학습 교재인 '불조심 길라잡이'가 학생별로 제공되며, 7월부터 약 두 달간 자율학습을 진행한 뒤 9월 8일 예선평가에 참여하게 된다. 예선평가 결과 우수 학급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상, 한국화재보험협회 광주호남지역본부장상, 한국소방안전원 전북지부장상 등이 수여되며, 시·도별 최우수 학급은 전국 본선에 진출하게 된다. 한편 지난해 제25회 불조심 어린이마당에는 전주덕진 관내 4개 학급 95명이 참가했으며, 전주온빛 초등학교와 전주화정초등학교가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다. /정소민 기자

전주남부시장 청년 시선으로 "시장을 바꾼다!"

전주남부시장 백년시장특성화사업단은 17일부터 오는 23일까지 '2026 남부시장 디지털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사업은 대학생들이 직접 시장 현장을 관찰하고 상인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참여형 리빙랩(Living Lab) 프로그램

으로 운영된다. 디지털 서포터즈는 전주남부시장 점포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와 문제 진단 △디지털 전환 지원 △SNS 콘텐츠 제작 △간편결제(QR) 활용 교육 △외국인 관광객 대상 다국어 안내 콘텐츠 제작 등 점포별 맞춤형 개선 실험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시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최근 증가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요에 대응해 시장 내 숨은 점포와 상품을 발굴·홍보하는 글로벌 콘텐츠를 제작하고,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디지털 역량을 시장 현장에 접목함으로써 상인과 청년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협력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참가 자격은 대학생과 휴학생, 대학 졸업 후 3년 이내 청년으로, 최종 선발된 참가자에게는 활동비, 봉사시간 인정, 활동인증서 발급, 우수 활동자 시상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정소민 기자

전북소방 소방·피난·방화시설 불시단속

평상시 철저한 관리 필요

전북소방본부는 아파트 등에 설치된 소방시설과 피난·방화시설 일제·불시단속을 실시한다. 점검은 사전 예고 없이 동일 시간대에 동시에 진행된다. 대상은 도내 아파트 가운데 면적과 층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곳을 중심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전북도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등에 대한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개정으로 신고포상제 신고 대상에 아파트가 포함된 만큼, 단속과 함께 입주주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 내 소방시설과

피난·방화시설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입주민 스스로 안전관리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확산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피난·방화시설 훼손 행위 △복도, 계단, 비상구 등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피난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 설치 행위 등이다. 소방시설과 피난·방화시설은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과 인명 대피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안전시설이다. 특히 아파트는 다수의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구조적 특성상 비상구, 계단, 방화문 등 피난로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짧은 시간 안에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평상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배달노동자' 든든한 안전 파트너

이륜차 무상점검·교통안전교육 등 든든한 노동 보호막 제공

전주시가 배달 이동을 노동자들의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든든한 동반자가 됐다. 시는 17일 배달 이동을 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륜차 무상 안전 점검과 교통 안전교육, 노동·건강 상담 지원사업 등을 전개했다.

이번 행사는 시와 쿠팡이츠서비스(유, 사)한국오도바이오팀비협회가 함께했다. 또 민·관 협력 이동을 노동자들의 탄압과 위험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직접 평가와 돕는데 무게를 두고 추진됐다. 이번 조치는 시와 쿠팡이츠서비스(유, 사)가 지난해 11월에 체결한 '이동노동자 안전 및 노동환경 개선 업무협약'에 따른 실질적 이행 과제이다. 실제 종사자의 안전과 권익을 지켜낸

가시적인 결과물로 풀이된다. 이날 무상점검에는 지난 3월부터 5월 까지 해당 지역 배달 이력이 있는 100여 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이륜차의 △구동계 △타이어 △배터리 △조향장치 등에 대한 정밀 점검이 지원됐다. 점검 결과 △전조화물류 △미션오일 △엔진 에어클리너 필터 등 소모품 교체도 지원됐다. 또 시는 이날 '상담의 날'과 '안전 캠페

인'을 동시에 운영하며 노동자들의 건강과 노동 현장에 대한 어려움을 함께 살피는 자리도 마련했다. 시는 이동노동자의 쉼 권리 보장을 위해 완산구와 덕진구에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찾아가는 안전 캠페인 등 민·관 협력을 통한 다각도의 권익 보호 정책을 지역 사회에 탄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전라감영 내삼문 "전통의 빛깔 되찾다"

단청 복원 공사 완료 내삼문 옛 모습 복원

전라감영 내삼문 단청공사가 마무리되면서 과거의 모습을 되찾았다. 시는 조선시대 지방통치 상징이었던 전라감영 내삼문 전통안료 단청 복원 공사를 완료 했다고 17일 밝혔다. 전라감영지 건물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복원돼 조선시대 '위엄'을 되찾았지만 단청이 칠해지지 않은 자연 상태였다. 시는 지난 4월부터 부채를 보호하고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내삼문 단청 공사를 추진했다.



전라감영 내삼문

<사진=전주시>

내삼문 단청 공사는 천연 안료와 전통 접착제인 아교를 사용한 전통단청기법으로 시공돼 문화유산 고유의 역사성과 진정성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단청 문양은 전주지역 관아 건물에서 보이는 단청 요소인 6엽 평연화 머리초와 경기전에서 보이는 향아리 모양을 넣어 지역적 특징을 반영했다. 시는 복원된 단청은 목재를 보호하는 기능을 회복해 문화유산 장기적 보존에도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시는 내삼문에 이어 나머지 전라감영지 내 건물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건물별 단청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김희숙 호성동 통장 관내 어르신 보양식 대접

우리 가치 실현 "모두가 하나로" 호성동 관내 어르신 여름나기 보양식 나눔 봉사가 행복과 기쁨을 더한 미소로 채워지며 이어졌다. 어르신 미소에 꽃을 피운 주인공은 호성동 김희숙 통장이다. 그는 관내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을 넘어 행복 넘치는 "우리"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 추진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김희숙 통장의 "우리" 가치 실현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공헌 그리고 정(精) 나눔으로도 표현됐다. /김명태 기자

이날 김 통장은 관내 어르신들에게 건강을 기원하며 몸소 삼계탕을 대접하며 온 마음을 담아 안부를 묻는 시간을 갖는다. 또 그가 지역어르신들에게 대접한 삼계탕은 그만의 어른공경으로도 확인됐다. 김희숙 통장은 "맛있게 드시고 폭염이 극성을 부리는 여름 건강하게 이기기시길 바란다"며 "우리란 가치는 모두가 하나일 때 이룰 수 있다. 모두가 하나 되길 소망한다"고 화답했다. /김명태 기자

전주시 수소기업들과 선진 수소기업 벤치마킹

전주 소재 수소기업 10개사와 서울 ㈜쓰리피닷컴 벤치마킹 실시 지역 수소기업 지원 방안 논의

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한양대학교 내에 있는 쓰리피닷컴(대표 하성규)을 방문해 선진 기술을 견학했다. 방문기업인 쓰리피닷컴은 지난 2020년 설립된 기업으로 세계 최초 재활용 고압 수소탱크를 상용화했다. 특히 한양대 산학협력단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성장한 대표적인 대학 기술창

업 우수사례로 알려져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쓰리피닷컴 연구실 및 제조설비 장비들을 견학하며 파이프와 수소탱크 등 기업의 생산제품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해당 기술과 지역 수소산업과의 연계 및 지역 수소기업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소민 기자

새만금에서 해양무인이동체 실증 '본격화'

새만금개발청(청장 문성요)은 새만금호 내 해양무인이동체 실증사업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상시험장 내 부이 설치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및 실시 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이번 실증사업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추진하며 2027년까지 총 214억원(해수부 150억, 전북도·군산시 50억, 민간 14억)이 투입되어, 새만금 해역에서 각종 계측·항행 안전용 부이를 설치하고 해상 실증시험을 본격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바다를 누비는 드론인 해양무인이동체는 자율운항, 원격제어, 해양관측 등 첨단 기술이 융합된 미래 해양산업의 핵심 분야로, 최근 해양안전, 국방, 물류, 환경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유·무료 직업 소개 역량강화교육 실시

전주시는 17일 '2026년 직업소개사업 종사자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전주지역 230여개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소의 대표자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진행됐다. 이번 과정은 '직업안정법'에 따른 법정 의무 교육으로 △직업소개사업의 이해 △직업 상담 및 정보관리 실무 △직

업윤리 의식 등 필수 과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와 함께 실제 현업 운영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노무 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참석자들에게 직업소개소 사업 운영에 대해 도움이 됐다. 교육은 직업안정법에 기반해 종사자들이 유·무료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며 지켜

야 하는 준수사항과 취업 상담 기법 등을 다뤘다. 이를 통해 참석자들은 올바른 윤리의식 확립과 직업소개사업 기본 수칙을 집중 점검했다. 직업소개소 운영 시 놓치기 쉬운 노무관계 법령과 주요 노무 관계도 심도 있게 다뤘었다. /정소민 기자

전주완산소방서 '119청소년단 어린이' 편지에 감동

위즈어린이집 원아 "소방관님 항상 힘내세요" 전주완산소방서 박덕규 서장은 17일 한국119청소년단 소속 위즈어린이집 원아들로부터 감사의 마음을 담은 손편지와 카네이션을 전달받았다. 이번 선물은 평소 소방안전교육과 체험활동에 참여하며 소방관에 대한 고마움과 존경의 마음을 키워온 아이들이 직접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손편지에는 "소방관님 항상 힘내주

세요, "불을 꺼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커서 소방관이 될래요", "항상 조심하세요" 등 어린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담긴 글과 그림이 적혀 있어 대원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선사했다. 전주완산소방서는 전달받은 편지와 카네이션을 사무실에 전시해 직원들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나눴다. 이어 "어린이들이 전한 따뜻한 응원이 직원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TP 성장로드맵 전북기업 미국수출 “성과 결실”

익산 (주)팜조아 큐브마늘 미국수출 3각 협력 공급망 확보

전북TP 선도기업 중장기 성장로드맵 성과가 미국 수출로 이어지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17일 전북테크노파크 이규택 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 선도기업 육성사업’ 통한 익산 소재 식품기업 (주)팜조아(대표 황은경)이 미국 파트너사 ESUFARM(이하 ESU)에 한국산 냉동 큐브마늘 수출 선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성과는 전북TP 선도기업 중장기 성장로드맵 제공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전북TP는 도내 기업들에게 글로벌 박람회 참여 △신제품 해외 글로벌 시장 판촉행사 △미주 코스트코 매출 확대 위한 POP 광고 지원사업 등을 입체적으로 전개하며 팜조아의 해외 경쟁력 강화와 해외 현지 유통망 개

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다. 이에 수출길에 오른 제품은 팜조아 독자적인 IQF(개별급속냉동) 특허 기술로 생산된 냉동 큐브마늘이다. 이번 IQF 관련 공정은 전북TP가 추진한 ‘선도기업 공정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IQF 공정 효율을 극대화한 대표적인 생산성 고도화 성과다. 이 제품은 미국 현지 전역에 대형 주류 유통 채널을 보유한 유력 수입·유통 기업 ESU를 통해 미주 전역 소비자들에게 공급될 예정이다. 팜조아 파트너사인 미국 ESU는 한인으로서 유일하게 미 전역의 주류 유통시장과 대형 유통채널에 신선 농산물을 공급하는 유력 기업이다. 지난 2020년 한국산 간마늘 수입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김천·상주 지역의 샤인머스켓을 한국 최초로 미국 코스트코(Costco)에 입점시키는 등 한국 농산물의 경쟁력을 미주 시장에 알리는 핵심 공급망이다. 팜조아는 이번 수출을 통해 ‘생산(팜조아)-현지관리(뉴욕법인)-유통(ESU)’으로 이어지는 탄탄한 3각 협력



전북테크노파크, 17일 ‘전북특별자치도 선도기업 육성사업’ 통한 (주)팜조아 큐브마늘 미국 수출 선적식 개최 <전북테크노파크>

체계를 구축하며 안정적인 미주 공급망을 확보하게 됐다. 관련해 팜조아는 향후 제4공장 통합 물류센터를 기반으로 한 냉동 말기트 등 K-농산물 수출 품목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황은경 팜조아 대표는 “전북TP 성장로드맵 기반 지원과 다각적인 육성 프로그램을 덕분에 해외 경쟁력을 갖추고 미국 주류 시장 진출이라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기적인 공급 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익산 등 지역 농가의 소득 창출과 한국 농식품의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NH농협생명 ‘어린이 경제·금융교실’ 운영

상관초 재학생 대상 맞춤형 수업을 진행했다. ‘모두레 어린이 경제·금융 교육’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경제와 금융의 기본 개념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1사 1교 프로그램과 연계해 학교를 찾아가는 현장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지광수 농협생명 전북총국장은 “학생들은 미래의 경제인으로서 합리적인 소비와 저축 개념을 조기에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모두레 이해하기 쉽게 알려졌으며, 고학년 대상으로는 저축의 종류와 기초 환율 개념을 다루는 등 학년별 수준에

전기안전공사 ‘혁신도시 상생大賞’ 최우수상 영예

95개 이전기관 중 ‘협력’ 지수 최고점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가 제1회 혁신도시 상생대상 시상식에서 혁신도시 부문 ‘최우수상’ 수상 영예를 안았다. ‘제1회 혁신도시 상생대상’은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혁신도시별 발전 현황을 공론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 마련됐다. 전북혁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10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성장, 활력, 협력 등 3개 분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상생지수를 측정하고 각 혁신도시 협력 성과와 성장 수준을 비교해 평가했다. 평가 결과 공사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95개 가운데 지표 배점이 가장 큰 ‘협력’ 지수에서 전체 최고점을 얻으며, 종합 2위의 순위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공사는 지난 2014년 6월 전북혁신

도시 이전 후, 지역 경제와 문화 발전을 위해 앞선 노력을 펼쳐왔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운영 중인 유니버설 안전예술단 교육사업이다. 2020년 창단해 어린이 등 취약계층 안전 교육과 지역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 6년간 연인원 82명의 장애인을 채용해 121회에 이르는 뮤지컬 공연 활동을 통해 8400여명의 지역 어린이들에게 전기 안전 교육의 중요성을 알렸다. 2021년부터 시작한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한 ‘드림온(Dream On) 프로젝트’ 사업도 공사가 앞서 열어나간 지역상생을 위한 공헌 사업이다. 또 청년들에게 생활안정과 진로 탐색과 취업 기회 제공까지 ‘자립’을 위한 모든 지원을 펼쳐나가고 있다. 특히, 올해는 ‘우리동네 ESG문화교실’ 주제로 홀몸 어르신 위한 노래교실과 방방과후 어린이 안전 교실 △임산부 대상의 친환경 생활제품 만들기 교실 △직장인을 위한 퇴근후연공연등



한국전기안전공사, 제1회 혁신도시 상생대상 혁신도시 부문 ‘최우수상’ 수상 <사진=한국전기안전공사>

연까지 다채로운 문화 행사들을 준비 중에 있다. 남화영 사장은 “지역사회와 상생 위한 우리의 작은 노력이 혁신도시 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안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국민연금공단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 운영

8월 21일까지... 효과적성성 검토 공단은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민원 응대 집중도와 직원 근무 환경개선 효과, 제도 도입 적정성 그리고 고객 불편 최소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연금 관련 각종 신고와 신청 업무는 공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정부24 등에서 이용할 수 있다. 또 국민연금증명서(개인용 6종)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발급할 수 있다. /김영태 기자

농진청, 직원 가족 초청 ‘일터 탐방·감자 수확 체험’

연구시설 둘러보며 직원소속감·자긍심 고취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국립식량과학원은 17일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본원에서 직원 가족들을 초청해 ‘직원 가족 초청, 시설 견학 및 체험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농촌진흥청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원아와 부모 15가족은 국립식량과학원 주요 시설을 차례로 견학하며 농업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기후변화 대응 작물 재배 환경을 연구하는 ‘인공기상동’과 우리 농산물을 건강기능식품 및 식의약 소재를 발굴하는 ‘기능성유용대사체연구동’을 둘러보며 첨단 농업 과학의 중요성도 배웠다. 이어 원내 분보기 발(전시포)으로 이동해 국립식량과학원이 개발한 ‘금신’, ‘골든볼’, ‘금나루’ 등 국산 감자 7 품종 생육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감자 수확 체험 시간을 가졌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감자 괴경 형태를 관찰하고 ‘큰 감자 찾기 대회’를

열어 어린이들 호기심을 자극했으며, 도록 매일 연구하는 임마가 자랑스럽다”라고 전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김병석 원장은 “이번 행사가 직원들에게는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행복한 일터를 제공하고, 자녀들에게는 농업의 가치를 전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농업과 농산물을 더욱 친근하고 가치 있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의 자리를 이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정소민 기자



전주파티마신협 ‘행복한집 프로젝트’ 진행

취약계층 보금자리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작은 정성을 보낼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신협의 나눔 가치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전주파티마신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파티마신협은 지역의 아동·청소년을 위한 어부바 간식꾸러미 지원, 가정의 달 어부바 도시락 나눔, 신협 어부바 멘토링 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따뜻한 금융협동조합의 역할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위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며 지역사회에 희망을 전하고 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주파티마신협은 5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으로 선정됐으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사회공헌 우수 신협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고용구조변화 대응 “중장년일자리발굴협의회 개최”

전북중장년내일센터, 채용 연계 협력체계 구축

인구고령화에 따른 고용구조변화 대응 ‘2026년 상반기 중장년일자리발굴협의회’가 지난 16일 개최했다. 이날 ‘중장년일자리발굴협의회’에서는 △전북지역 고용안정 △지역핵심산업 연계형 실효적인 고용모델 등의 심도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중장년층들의 그동안 쌓아온 개별 축적 경험을 토대로 상생 구축을 중점으로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노사발전재단 전북중장년내일센터 이명숙 센터장을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 전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전북여성가족재단, 전주상공회의소 등 지역 주요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전북지역 주력산업 중장년 지역채용수요 연계 방안 △기관별

기업지원사업과 고용서비스 연계 방안 △중장년일자리 발굴과 고용 활성화 위한 협력체계가 구축됐다. 이에 전북중장년내일센터에서는 전북 지역 기업들의 상시적·잠재적 인력수요를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선제 발굴해 지역채용수요 연계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기업에는 고숙련 중장년 인력을 매칭해 구인난을 해소하고, 중장년 구직자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한다

는 구상이다. 또 전북지역 전략 및 특화산업(농생명·바이오, 모빌리티 등) 흐름에 발맞춰 중장년 맞춤형 역량강화교육과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이명숙 전북중장년내일센터 센터장은 “지역 내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전북지역 중장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 교육감 인수위, 자문위원 58명 구성

전문위원 인선서 배제됐던 교원 단체 모두 합류... 25일 위촉식 및 활동 돌입

천호성 제20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58명 규모의 자문위원단 구성을 마쳤다.

전문위원 인선 과정에서 배제됐던 교총과 교사노조를 포함한 주요 교원 단체가 모두 합류하면서, 각계각층의 현장 목소리를 수렴할 대규모 인수위 체제가 갖춰졌다.

17일 확인된 인수위원회 자문위원 명단에 따르면, 자문위원은 교육감 추천, 일반 추천, 단체 추천을 거쳐 총 58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단체 추천을 통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교사노동조합, 전북교원

단체총연합회 등 '교원 3단체' 소속 인사가 나란히 명단에 오르며, 앞서 전문위원 인선 당시 제기된 사전 소통 부재 지적을 수용해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현장 교원들의 정책 참여 통로를 열었다.

또한 공무원노조 및 교공노·학비노조 등 교육공무직 단체를 비롯해 참교육학부모회, 민주노총, 전북겨레하나 등 노동·시민사회계와 전·현직 교육계 인사들이 두루 망라되면서, 학교 현장의 다양한

구성원을 정책 논의에 참여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자문위원 위촉장 수여식은 오는 25일 오후 1시 전북교육청 별관 3층 시청각실에서 열린다.

전문위원 57명에 이어 58명의 자문위원단 구성까지 마무리한 천호성 당선인은 내달 1일 공식 취임을 앞두고 공약 이행 로드맵 수립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최성민 기자



<사진=전북체육회>

전북체육회-스포츠안전협, 안전문화 확산

사고 예방 대응 등 협력

전북도체육회가 안전한 체육 환경을 위해 진력하고 있다.

17일 도 체육회에 따르면 이날 스포츠안전협회의 스포츠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우호적인 협력을 통해 안전사고 없는 명랑한 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힘을 모으게 된다.

주요 협약 내용은 스포츠안전

발전을 위한 상호 교류 스포츠행사 개최 시 사고 예방 대응 위한 노력 △전문인력 양성 위한 교육 등 자원교류 △체협교실 등 안전문화 확산 위한 협력 등이다.

스포츠안전협회 류승민 대표는 "전북체육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체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전북교육청, '학교문화 책임규약 실천 우수' 학교 선정

11곳 발표... 학생 및 학부모 참여 활성화 성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도내 전 학교에서 운영 중인 '학교문화 책임규약'의 실천 우수 학교 11곳을 선정해 17일 발표했다.

학교문화 책임규약은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 생활지도 등을 위해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교육 3주체가 각자의 책임을 인지하고 실천을 약속하는 제도다.

전북교육청은 구성원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실제 현장에 적용 가능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공모를 거쳐 우수 학교를 선정하고 있다.

올해 우수 학교로 선정된 곳은 전주미산초, 성북초, 용산초, 이리백제초, 이리고현초, 봉서초 등 초등학교 6곳과 소양중, 이일여중, 군산중, 군산금강중 등 중학교 4곳, 해성고 등 총 11개교다.

이들 학교는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해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낸 점을 평가받았다.

특히 이일여중은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시간 제약 없이 학부모의 참여를 활성화했다.

이를 기반으로 긍정 메시지 나눔 활동을 전개하며 교육 주체 간 신뢰를 회복한 사례로 꼽혔다.

이리고현초는 학생 서포터즈단을 중심으로 책임규약에 대한 공감대를 넓혔다.

또한, AI(인공지능) 음악 공모전과 소품 영상 공모전 등 학생들의 흥미를 반영한 창의적 프로그램을 기획해 자발적인 실천 동기를 부여했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공모에서 확인된 11개교의 우수 실천 사례를 도내 전체 학교에 공유할 계획이다. 형식적인 선언에 그치지 않고, 각 학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책임규약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정미정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학교문화 책임규약은 교육 3주체가 참여해 서로의 권리와 책임을 확인하는 실천 기반"이라며 "관계 중심 생활교육을 통해 평화로운 학교 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정읍시, 26일 창무극 '정순왕후' 재공연

정읍시가 호남이 배출한 유일한 왕비인 정순왕후의 삶을 다룬 창무극 '정순왕후' 재공연을 오는 26일 오후 7시 30분 정읍시예술회관에서 무료로 개최한다.

이번 무대는 정읍시립국악단의 정기공연으로 마련됐다. 작품은 정읍 칠보면에서 태어난 조선 제6대 임금 단종의 비, 정순왕후 송씨의 생애를 주제로 다룬다. 왕위를 빼앗긴 남편의 비극적인 죽음을 이룬 후 평생 절개와 충절을 지킨 그의 애절하고 고귀한 삶을 예술로 풀어냈다.

특히 이 창무극은 정읍의 전통예술 역량을 바탕으로 기획하고 창작한 작품이다.

정읍시립국악단이 선보이는 수준 높은 소리와 연주, 안무에 한층 발전한 영상과 조명을 더했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 출신이자 호남 유일의 왕비인 정순왕후를 다시금 조명하는 자리인 만큼, 많은 분이 공연장을 찾아 정읍의 역사와 예술이 만나는 감동의 순간을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군산시청 조정팀, 전국조정대회서 메달 수확

군산시청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조정팀이 '제23회 K-water 사장배 물사랑 전국조정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했다.

유은경 감독이 이끄는 군산시청 조정팀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군산 금강하구둑 나포 조정경기장에서 열린 '제23회 K-water 사장배 물사랑 전국조정대회' 여대 및 일반부 더블스컬과 싱글스컬에 출전해 각각 금메달과 은메달을

획득했다. 군산시청은 박재인 선수와 안예선 선수가 한 팀을 이룬 여대 및 일반부 더블스컬에서 8분 4초 84를 기록하며 2위와 0.4초의 차이로 금빛 물살을 갈았다.

또한, 여대 및 일반부 싱글스컬에서는 올해 실업팀 1년차로 두각을 보이는 안예선 선수가 8분 6초 36의 기록으로 2위를 차지했다.

유은경 군산시청 감독은 "우리팀 3명

의 선수가 국가대표에 선발되며 남은 2명의 선수들로 어려운 여건 속에 훈련을 해왔는데 끝까지 잘 따라와 준 선수들에게 승리의 영광을 돌리고 싶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2년 이후 4년만에 군산에서 개최된 조정대회에서 군산시청 조정팀을 비롯해 전북 소속의 대학·고등부팀들 또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남자 대학부에 출전한 국립군산대 선

수단은 싱글스컬 2위(신민철, 1학년), 더블스컬 2위(김건희·유자람, 1학년), 경량급싱글스컬 3위(우준식, 3학년), 경량급더블스컬 2위(최성진, 4학년/유영웅, 3학년)를 기록했으며, 남자 고등부에서는 전북체육고등학교가 무타페어 1위(강승현·지우찬, 3학년), 경량급싱글스컬 3위(이동현, 2학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며 전북 조정의 저력을 입증했다.

/군산=지승길 기자

중국 강소성 이싱시 자사호 제작 도예가, 부안 방문

부안군은 중국 강소성 이싱시의 대표적 공예품인 자사호(紫砂壺) 제작 도예가들이 지난 16일부터 오는 20일까지 부안청자박물관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부안청자박물관과 이싱시 도예가 간의 도자문화 교류를 통해 고려상감청자와 자사호의 예술적 교류 및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문단은 중국 1급 공예미술사 저우이(周晔·Zhou Yi)를 비롯해 위진(魏臻·WEIZHEN), 장웨이(張學英·Zhang Xueying), 샤메리(夏梅·Merry Xia), 왕마오(王茂·Wang Mao) 등 총 5명의 이싱시 도예가들로 구성됐다.

중국차의 정점이라 불리는 이싱시의 자사 주전자 제작 시연은 현지에서 직접 가져온 자사토를 이용해 17일 오후 1

시부터 부안청자박물관에서 진행됐으며 중국 전통 도예기법과 조형미를 선보였다.

또 이싱시 상감 자사호 도자기와 부안 고려상감청자 간 교류전 개최 방안을 협의하고 향후 도자문화 공동 전시 및 상호 방문 전시 추진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부안청자박물관의 부안청자지원센터 준공에 따라 입주작가 프

그램에 이싱시 도예가를 초청하는 방안을 논의해 국제 도예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창작 교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방문을 통해 고려청자의 전통을 잇는 부안상감청자의 예술성과 위상을 세계에 알리고 이싱시 자사호와의 상호 협력을 통해 한·중 도자문화 교류를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다.

/부안=은봉기 기자

도문화관광재단, 위케이션 활성화 사업 설명회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은 17일 오후 1시 30분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 1층에서 도내 14개 시·군 담당자 및 상품·운영 공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2026년 전북형 위케이션 활성화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2026년도 전북형 위케이션 프로그램 운영사 선정에 발맞춰, 도내 시·군 및 상품·운영 공간 관계자들의 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먼저 작년 전북형 위케이션의 주요 성과를 공유했다.

이어서 2026년도 사업의 핵심 추진 방

향과 함께 도내 14개 시·군별 자원을 활용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 상품을 상세히 소개했다. 아울러 신규 상품 구성에 따른 원활한 현장 운영 방안을 협의하고, 지역별 편중 현상 완화를 위한 시·군 연계형 결합 상품 활성화 등 구체적인 상생 방안에 대한 질의응답과 의견 수렴 시간도 진행됐다.

이경윤 대표이사는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참여 주체 간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고, 실행력 있는 통합 홍보·마케팅을 전개해 도의 관광객 유치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장정철 기자

일상 속 '에너지 절약' 실천수칙

 불필요한 조명기구 소등하기	 세탁기 사용 회수 줄이기	 전기밥솥 보온시간 줄이기	 T.V 시청 시간 줄이기	 고효율 가전제품 사용하기
 냉장고 에너지 효율 높이기	 절수설비 기기 설치하기	 가전제품 대기전력 차단하기	 난방온도 2도 낮추고 냉방온도 2도 높이기	 창틀과 문틈 바람막이 설치하기

“나만의 그림책 만든다”

익산시, 더미북 창작 워크숍 운영

익산시가 자신만의 이야기를 그림책으로 표현해 볼 수 있는 특별한 창작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익산시는 수도산그림책출판사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그림책 더미북 창작 워크숍’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더미북(Dummy Book)’은 그림책을 정식 출판하기 전에 글과 그림의 배치를 확인하기 위해 제작하는 가제본 형태의 책이다.

참가자들은 내달 1일부터 10일까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총 4회 과정으로 그림책 창작의 기초를 배우게 된다.

1회차에는 그림책과 더미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주제 발굴과 작품 기획을 진행하고, 2회차에는 이야기 흐름과 장면 구성을 구체화한다.

3회차에는 글과 그림의 조화를 고려해 지면을 구성하고, 4회차에는 각자가 완성한 더미북을 함께 공유하며 작품을 소개하고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참여 신청은 오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익산시 통합도서관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수도산그림책출판사 관(063-859-7357)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이번 프로그램이 평소 자신만의 이야기를 책으로 표현해 보고 싶었던 시민들에게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익산, 건강 복지 강화 2(題)

군산시 ‘시니어 필라테스’ 운영

군산시보건소(소장 문다해)는 어르신들의 근력 향상과 낙상 예방을 위해 7월부터 8월까지 운영하는 ‘천천히, 단단하게 시니어 필라테스’ 프로그램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근력 강화와 균형 능력 향상이 필요한 65세 이상 군산시민 20명이며, 군산시보건소 건강증진실을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주 3회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운영되며, 전문 필라테스 강사와 운동처방사가 함께 어르신들의 낙상 위험을 줄이고 신체의 신체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관철에 무리가 적은 저충격 운동을 중심으로 호흡법과 자세 교정,



코어 안정화 운동을 실시하며, 허리·무릎·어깨 등 취약 부위의 부담을 줄이면서 근력과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된다.

또한 밴드와 볼 등 소도구를 활용한 상·하지 근력 강화 운동과 균형 훈련, 보행 안정화 운동을 병행해 어르신들의 낙상 위험을 줄이고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 신청 및 상담은 군산시보건소 건강증진실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치매 안전망’ 가동

익산시 보건소는 17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조기 진단부터 치료 관리, 맞춤형 돌봄, 가족 지원까지 아우르는 통합관리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고 밝혔다. 우선 치매의 중증화를 막기 위해 조기 발견 체계를 탄탄히 다졌다. 그 결과 올해 6월 기준 3,736건의 인지선별검사와 진단·감별검사를 받 빠르게 실시했다.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복지도 한층 강화됐다. 시는 치매 환자의 인지 기능 유지를 위해 치매환자 쉼터를 상시 운영하는 한편, 재가 치매 환자 304명에 대해 신체적·정서적·사회적 요구를 꼼꼼히 반영한 맞춤형 사례 관리를 실시 중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가족교실 운영 방식을 기존 센터 내소

중심에서 ‘가정방문형’까지 과감히 확대해 눈길을 끈다. 이를 통해 센터 방문이 어려운 가족들도 지치지 않고 돌봄을 이어가도록 돕고 있으며, 정서적 지지와 자조모임, 가족카페 운영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 자원과 연계한 예방 프로그램도 한층 다양해졌다. 의료 취약지 경로당을 직접 찾아가는 인지 자극 활동과 스트레스를 날리는 난타교실을 열고 총 69회를 진행해 참여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이진윤 익산시 보건소장은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좌절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당당하게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익산 탐마루 블루베리, 전국 소비자 공략

20일 네이버·농협몰서 라이브 할인 판매 진행

익산 대표 농산물 브랜드 ‘탐마루’ 블루베리가 온라인 라이브 판매를 통해 전국 소비자와 만난다.

익산시는 오는 20일 네이버와 농협몰을 통해 탐마루 블루베리 라이브 할인 판매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2026 익산 옹포블루베리축제’와 연계해 마련됐다. 축제 현장을 찾지 못하는 소비자들도 온라인으로 익산 블루베리를 만나볼 수 있도록 판매 채널을 확대하고 소비 촉진에 나선다.

라이브 방송에서는 탐마루 블루베리를 시종가 대비 저렴하게 판매하며, 방송 중 구매 고객을 위한 다양한 혜택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생산 농가

와 상품 소개를 통해 익산 블루베리의 우수한 품질과 생산 과정을 소비자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이번 라이브 판매는 최근 이어진 온·오프라인 판매 성과를 바탕으로 추진된다.

앞서 익산시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 관훈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수도권 특별 관촉행사를 진행해 당초 목표인 1,400kg을 넘어선 1,517kg(200g 기준 7,584팩)의 블루베리를 판매했다.

이어 지난 15일 진행된 1차 라이브 할인판매 역시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마무리되며 익산 블루베리의 인기를 확인했다.

익산 탐마루 블루베리는 서익산농협 블루베리 공신회 소속 80여 농가가 공동 선별·출하하고 있으며, 올해 약 20톤의 생산이 예상된다. 철저한 품질관리와 공동선별 시스템을 기반으로 수

도권 소비자들에게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이번 라이브 판매를 계기로 익산 블루베리의 인지도를 더욱 높이고 온라인 판로 확대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양재 하나로마트 관촉행사와 1차 라이브 판매를 통해 익산 블루베리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2차 라이브 판매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탐마루 농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해 다양한 마케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6 익산 옹포블루베리축제’는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옹포면 일원에서 열리며, 블루베리 수확 체험과 농특산물 판매, 문화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2위

정량지표 달성률 97%

군산시가 ‘2026년도(25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내 14개 시군 가운데 종합 2위를 차지하며 우수한 행정 역량을 입증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자체 합동평가는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 시책 등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행정 전반의 성과를 종합 평가하는 것으로,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는 정량평가와 지표별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정성 평가로 진행된다.

군산시는 도내 시군 가운데 가장 많은 67개의 정량지표를 관리하면서도 65개 지표를 달성, 97%의 높은

달성률을 기록했으며 정성평가에서도 하반기 우수시로 선정되며 역대 최고 실적을 거뒀다.

이 같은 결과는 부시장 주재 추진 상황 보고회를 수시로 개최해 부진 지표를 집중 관리하고, 직원 교육과 컨설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성과관리와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한 데 따른 것으로 평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정책을 강화하고, 전북을 선도하는 책임 행정을 통해 시민의 신뢰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사진=정읍시>

정읍시, 하천 쓰레기 정화 사업 본격화

수질 오염 원천 봉쇄

정읍시가 수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고 취업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2026년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 약 4개월 동안 예산 5300만원을 들여 하천 쓰레기 85.3톤을 수거하는 성과를 냈다. 올해도 기후 변화로 잦아진 집중호우나 태풍 발생 시 물결로 흘러드는 부유 쓰레기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변에 방치된 폐기물을 신속하게 치유수질 오염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단순한 환경 정비 수준을 넘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한다. 저소득층, 장애인, 장기 실직자 등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우선 선별해 양질의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기 때문이다.

이학수 시장은 “지자체 거둔 성공적인 수거 성과를 발판 삼아 올해도 정읍의 소중한 물길을 더욱 깨끗하게 지켜내겠다”며 “환경 보호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극대화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청정 정읍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나선다

맞춤형 재정지원 제공... 내달 3일까지 접수

군산시는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 기반을 구축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돕기 위해 ‘2026년 군산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역특화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내달 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판로개척과 인지도 제고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에게 홍보·마케팅 등 맞춤형 재정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추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군산시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세부 요건으로는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이 지원할 수 있다. 최종 선정된 2개 기업에는 각 1,500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되며, 사업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오는 12월 말까지다.

지원금은 기업의 특성에 맞춰 △홍보 콘텐츠 제작 △홍보·마케팅·광고 △온·오프라인 쇼핑몰 입점 및 기획전·전시회 참가비 등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런한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지역 특화사업이 관내 사회적경제기업들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자립의 발판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관내 유망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접수는 지난 16일부터 내달 3일 오후 6시까지이며,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군산시청 7층 일자리경제과로 방문하거나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모집

병역 의무 이행과 영농 정착 동시 지원

정읍시가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고 미래 전문 인력을 기르기 위해 내달 2일까지 ‘2027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 제도는 병역법 제36조와 제38조에 따라 병역 자원 총원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영농 정착 의지가 높은 청년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해 농업 분야에 종사하게 하는 대체복무 방식이다.

신청 대상은 △후계농업경영인육성

사업 또는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됐거나 2027년도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자 △병역판정결과 병역판정결과 대상자 △대학 등의 재학생이 아닌 자(희망년도 졸업예정자는 신청가능)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선발된 인원은 3주 동안 군사 훈련을 받는다. 이후 현역 임명 대상자는 34개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는 23개월 동안 농업 현장에서 일하게 된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내달 2일 오후 6시까지 정읍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인력개발팀을 직접 방문해 서류를

내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정읍시청 누리집(홈페이지) 새소식 게시판이나 정읍시농업기술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궁금한 점은 인력개발팀(063-539-6265)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농촌지원과 관계자는 “이 제도는 청년들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미래 농업을 이끌 역량 있는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해경, 구명조끼 착용 기준 및 안전수칙 집중 홍보

군산해양경찰서는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낚시어선 이용객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 기준 및 안전수칙을 집중적으로 홍보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전국적으로 낚시어선 위반행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구명조끼 미착용이 80건으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낚시금지구역 위반이 67건, 미등류 낚시어선 운영이 58건, 승선정원 초과가 4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현행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르면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안전운항을 위해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해야 하며, 승객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승선을 거부할 수 있다. 승객 또한 선원의 안전 조치에 협조하고 착용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김의진 군산해경 해양안전과장 직무대리는 “사고는 단 몇 초 만에 발생하지만, 구명조끼 착용 여부가 생존을 결정짓는다”며, “단속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착용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습관으로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군산시, 지방세 납부·환급금 신청 서비스 강화

다양한 납부 수단 제공

군산시는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높이고 미신청 환급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지방세 납부 및 환급금 신청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방세 월별 납부 일정과 가상계좌, 스마트 위택스, ARS 등 다양한 납부 수단을 제공해 체납 발생을 최소화하고 납세자의 이용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지방세 환급금 안내문과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환급 사실을 알리고 있으며, 보이스피싱 우려 등으로 신청을 미루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위택스를 통한 직접 조회·신청 절차도 적극 지원한다.

시는 시민들이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단지과 점지형 리플렛을 각각 2,000매씩 제작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아파트 관리사무소, 시청 민원실, 차량등록사업소 등에 배포·비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지방세 납부와 환급금 신청 서비스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고창군 '미식관광 특화거리' 조성

중기부 '로컬테마상권 육성사업' 최종 선정 사업비 40억 원 확보



고창군은 중소벤처기업부 로컬테마상권 육성 선정돼 고창읍 성산2길 일원에 '미식문화테마상권'을 조성한다고 17일 밝혔다.

고창군이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26년 지역상권 육성사업(로컬테마상권) 공모에 최종 선정돼 미식관광 특화거리를 만든다.

17일 고창군에 따르면 군은 2년간 총 사업비 40억원을 들여 고창읍 성산2길 일원에 '고창 미식문화테마상권'을 조성한다.

고창읍 성산2길은 음식점과 카페 등 128개소가 집적된 고창대표 먹거리 상권이다. 특히 최근에는 고창 터미널도시 재생 혁신지구사업과 걷고싶은길(전선지중화, 보행환경개선)이 진행되면서 도시활력을 주도하는 테마거리로 뜨고 있다.

고창군은 이곳에 풍천장어·복분자·수박 등 지역 농수산물과 오랜 역사를 간직한 노포의 식문화를 활용해 고창만의 미식 콘텐츠를 개발한다

빈 점포 창업 지원, 로컬브랜드 상품 개발, 디지털 마케팅 강화로 상권 경쟁력을 높이고, 상인·주민·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상권 거버넌스를 구축해 지속 가능한 상권 생태계를 만든다. 특히 대중교통이 편리한 장점을 살려, 청보리밭축제·모양성제·복분자수박축제 등 대표 축제와 함께하는 체류형 관광상품도 운영된다. 낮에는 축제 구경, 밤에는 고창특화 안주나 디저트가 곁들여진 백주집이나 카페에서 머물며 '찾고 싶은 곳', '머물고 싶은 곳'으로 변신한다. 앞서 중기부는 올해 로컬테마상권 10곳을 문화유산형·체험형·미식형으로 나눠 선정했으며, 고창군은 국민참여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청주·평창·강진 등과 함께 미식형에 이름을 올렸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선정은 고창의 풍부한 식문화 유산 자원과 지역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 상권기획자와 행정의 열정이 함께 만들어낸 값진 결실이다"며 "K-푸드의 원형을 간직한 글로벌 생태미식도시 고창을 실현해 인구소멸 위기를 넘어서는 대한민국 대표 로컬테마상권으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지평선학당 하반기 수강생 모집

22일부터 5일간 접수

김제시는 김제사랑장학재단이 2026학년도 하반기 지평선학당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김제시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 및 김제시에 거주하는 학교 밖 청소년으로,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총 143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 중 115명은 선발시험을 통해 선발하며, 고등학생 28명은 학교장 추천을 통해 선정된다. 또한 시험 선발 인원의 20%는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선발할 예정이다.

원서 접수는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지원자는 본인인 보호자 모두 공고일 현재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특히 이번 모집부터는 방문 접수와 함께 온라인 접수도 가능해져 지원자의 편의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선발시험은 내달 11일에 실시되며, 시험과목은 국어·영어·수학이

다. 응시자는 시험 시작 30분 전까지 지정된 고사장에 입실해야 하며, 세 과목 중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일 경우 불합격 처리된다.

하반기 프로그램은 내달 27일 개강해 약 4개월간 운영된다. 수강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월-목요일 방과 후 4시간, 금요일에는 방과 후 2시간 동안 국어·영어·수학 집중 수업을 받게 되며, 학생 개개인 진로 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1:1 맞춤형 진로·진학 컨설팅도 함께 제공된다.

정성주 이사장은 "학생들이 안정적인 학습 환경에서 자신의 목표를 향해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지원을 이어가겠다"며,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수준별 맞춤형 교육과 1:1 학습 컨설팅 등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제사랑장학재단 누리집에 게시된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장학재단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해경, 해양오염사고 대비 해상방제훈련 실시

부안해양경찰서(서장 박성태)는 지난 16일 전부 고창군 해상풍력단지 인근 해상에서 대규모 해양오염사고를 대비해 민·관 합동 해상방제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부안해경을 비롯해 부안군, 해양환경공단 등 7개 기관 및 단·업체 인력 총 90명과 경비함정, 민간어선 등 선박 13척을 동원했으며, 특히 민간의 해양오염방제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 어민으로 구성된 해양자율방재단과 방제선단을 구성해 훈련을 진행했다.

주요 훈련내용은 △사고상황 접수 및 전파 △과공부 분쇄 및 유류 이적 △오일펜스 설치 및 유회수기 작동 △양식장, 어장 등 민간자원 보호조치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황성훈 해양오염방제과장은 "이번 민·관 합동해상방제훈련을 통해 관계기관 및 지역어민들과 유기적인 협업을 강화하고 해양오염사고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부안=온봉기 기자

새만금 김제 독서 감상문 공모전 개최... 8월 18일까지

김제시립도서관은 독서의욕 고취 및 독서를 생활화 하고자 올해도 4회째 2026년 새만금 김제 독서감상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 기간은 오늘부터 8월 18일까지이며, 초등학교 이상 국민 누구나를 대상으로 초등부(4~6학년), 중·고등부, 일반부 등 총 3개 부문으로 나눠 운영한다. 부문별로 선정된 도서를 읽고 감상문을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도서는 총 6권으로 △초등부 '그때 목욕탕', '나나 올리브에게' △중·고등부 '슬픔의 틈새', '친밀한 가해자' △일반부 '나의 완벽한 장례식', '안녕이라 그랬어이다'

감상문은 초등부(A4 1장 이상), 중·고등부(A4 2장 이상), 일반부(A4 2장 이상) 분량으로 작성해 한글파일로 시립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작품은 심사를 거쳐 각 부문별 최우수상 1명, 우수상 1명, 장려상 2명씩 총 12명의 수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김제시장이 수여되며, 부상으로 도서문화상품권이 지급된다. 특히 올해 공모전은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지는 관심과 참여 열기를 반영해 시상 규모를 확대했다. 기존 장려상 수상 인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고, 총 수상 인원을 9명에서 12명으로 확대해 더 많은 우수 작품을 발굴·시상할 계획이다. 최종 수상자는 오는 9월 중 시립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별도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 군민 체감 적극행정 본격 시동

5대 추진방향 16개 세부과제 가동

부안군은 전례 답습적인 업무처리를 지양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2026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다.

올해 실행계획은 군민에게 신뢰받는 적극행정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지자체장 선도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지원 확대 △소극행정 척과 △적극행정 참여 및 소통 강화 등 5대 추진방향과 16개 세부추진과제를 확정해 적극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제도를 체계화해 안전 상정 전 사전에 적정성을 검토하고 연 1회 후속조치 결과를 확인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크게 높였다. 또한 역대 우수사례를 한데 모은 적극행정 성과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카드뉴스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

해 대내외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공직자들이 불필요한 규제와 절차를 과감히 줄여 신속하고 과감하게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도전하는 적극행정은 적극 지원하고, 안일한 소극행정은 엄중 문책해 군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안=온봉기 기자

김제시, 새만금 기본계획 국비 반영 건의

정성주 시장, 문성요 신임 새만금개발청장 면담



정성주 김제시장, 17일 문성요 신임 새만금개발청장 면담 <사진=김제시>

정성주 김제시장이 새만금개발청을 방문해 김제시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핵심사업들을 새만금 기본계획(MP) 및 국가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제시에 따르면 정 시장은 17일 새만금개발청에서 문성요 신임 새만금개발청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에서는 문 청장의 취임을 축하하는 한편, 최근 새만금의 최대 화두인 '새만금 기본계획(MP) 재수립'과 '현대자동차 투자 지원' 등 주요 현안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양 기관의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이 자리에서 정 시장은 △안전적인 용수 공급을 위한 '심포배수지 신설' △수변도시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복합커뮤니티센터' 국가예산 반영 △해양 문화·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립해양도시과학관' 사업의 새만금 기본계획 반영 △'새만금 기본계획'에 새만금 신항 포함' 등을 건의했다. 정 시장은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과 현대차 투자 등 주요 현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새만금개발청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김제시에서도 관련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활동 강화

부안군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활동 강화에 나섰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대한 인식 제고와 예방수칙 실천 확산을 위해 매주 목·금요일 하서보건지소 내에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다.

홍보관에서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의 주요 증상과 예방수칙, 올바른 농작업복 착용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예방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SNS와 현수막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

칙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진드기 매개 감염병 중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감염 시 2주 이내 38℃ 이상의 고열과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부안군보건소장은 "농작업이나 야외활동 후 2주 이내 고열,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야외활동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진드기 매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예방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안=온봉기 기자

김제시, 공직자 홍보역량강화 교육

김제시는 17일 대회의실에서 직원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내 중심의 시민 공감형 시정 홍보'를 주제로 공직자 홍보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공직자의 정책홍보 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본청의 팀장과 주무관은 물론, 대민 행정 최일선에 있는 읍면동 직원까지 참석해 시정 전반의 홍보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다.

이날 특강은 ㈜프래드믹 문형진 대표를 강사로 초빙했으며, 문 대표는 현재 건국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겸임

교수와 한국공항공사 홍보 자문위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개발원 등 다수의 공공기관과 기업에서 미디어 트레이닝 및 PR전략 컨설팅 등 수백 건의 실무 사례를 경험한 홍보 전문가다.

교육은 △홍보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 △공공 및 기업 부문의 홍보 우수 사례 벤치마킹,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홍보 콘텐츠 개발 노하우 등 생생한 사례 중심으로 진행됐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우리 시를 대표하는 '홍보대사'이자 '대변인'인 공직자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홍보 실무 역량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됐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 복분자와 수박축제' 19일 개막

21일까지 개최

고창군 대표 여름 축제인 '풍천장과 함께하는 제23회 고창 복분자와 수박축제'가 오는 19~21일(3일간) 선운산도립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고창의 대표 농수산물인 복분자, 수박, 풍천장어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로, 관광객들의 오감을 만족시킬 다채로운 체험 행사와 문화 공연, 농특산물 판매 행사가 마련된다.

축제 기간 현장에서는 복분자, 수박, 장어를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으며, 풍성한 시식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1인 가구 증가와 소비자 편의를 반영해 복분자를 소포장 판매해 가격 부담을 크게 낮췄다. 개막 첫날인 19일에는 명품 고창수박의 우수성을 알리는 '고창 수박 품평회'가 열리며, 동리창극단의 흥부전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김다현, 강진, 금정의 축하공연이 이어진다.

이날인 20일에는 전국 카빙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수박 카빙대회가 열려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며, 신나는 음악과 함께 즐기는 물총싸움 등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도 제공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복분자와 수박, 풍천장어는 고창을 대표하는 우수 농수산물이다"며 "싱그러운 초여름 선운산도립공원에서 맛과 즐거움이 가득한 축제를 즐기며, 가족·친구·연인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고창=백종규 기자

완주군 남계리유적 국가사적 지정예고

윤지충 등 순교자 유해 출토 유적
국가유산청, 최종 심의 절차 돌입
보존·연구 국가 차원 기반 강화

완주군(군수 유희태)은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이 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 '완주 남계리유적'을 국가 사적으로 지정하기 위해 지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완주군 이서면 남계리에 위치한 완주 남계리 유적은 조선 후기 신해박해 당시 최초로 순교한 윤지충·권상연과 신 유박해 당시 순교한 윤지현·유항검 등 순교자 유해 및 관련 유물이 출토된 장소로 알려진 유적이다.

이 유적은 조선 후기 천주교의 수용과 확산 과정은 물론 당시 지역사회의 변화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남계리 유적은 조선 후기 사회·사상사와 종교문화의 변화를 입증하는 역사 현장으로서 한국 천주교 초기 공동체의 형성과 전개 과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관련 기록과 유적의 입지, 역사



남계리유적 전경

<사진=완주군>

적 배경 등이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어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완주군은 그동안 남계리 유적의 가치 규명을 위해 학술조사와 문헌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이번 국가사적 지정예고는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남계리 유적의 가치가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가유산청은 관계 기관 의견수렴과 국가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사적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적

으로 지정될 경우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체계를 갖추게 되며, 향후 학술연구와 정비사업, 문화유산 교육 및 활용사업의 기반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 남계리 유적의 국가 사적 지정예고는 완주군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국가적 가치를 인정받은 매우 뜻깊은 성과"라며 "체계적인 보존과 연구를 통해 역사문화 자산을 미래세대에 전승하고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군, 무궁화오토캠핑장 카라반 '새단장'

5억 투입 노후시설 최신형 교체
냉난방 취사 등 편의성 강화

완주군이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해 무궁화오토캠핑장 내 노후 카라반 8대를 최신형으로 전면 교체했다. 이번 시설 쇄신으로 이용객 편의성과 안전성을 대폭 강화한 신규 카라반은 오는 7월 6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기존 카라반의 노후화로 발생하던 이용객들의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전반적인 캠핑장 만족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추진됐다.

새롭게 자리 잡은 카라반은 내부 공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고성능 냉난방 시설, 현대적인 취사 공간을 갖추었으며, 전면에 야외 데크 시설을 탄탄하게 구축해 가족 단위 관광객이 한층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조성됐다.

완주군 무궁화오토캠핑장은 수려한 자연경관 속에서 캠핑을 즐기는 지역의 대표 관광·휴양시설이다. 완주군은 이번 시설 개선이 캠핑장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지역 내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무궁화오토캠핑장 카라반은 숲나들e 홈페이지를 통해 7월 6일부터 예약 및 이용이 가능하다. /완주=김명곤기자

영호남 정보화마을 '화합의 장' 완주 경천애인센터서 열려

완주군이 전북과 경북의 따뜻한 화합을 도모하고 농촌 지역의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는 영호남 교류의 중심 무대가 됐다.

영호남 상생 협력의 장인 '제14회 전북·경북 정보화마을 친선 교류대회'가 완주군 경천애인 활성화센터에서 지난 16일부터 시작해 17일까지 1박 2일간 열리며 영호남 정보화마을의 연대감을 높였다.

지난 2010년 경북 경주에서 첫걸음을 댄 이 대회는 전북특별자치도와 경상북도가 매년 교차로 개최해 온 행사다.

올해는 완주군이 무대가 되어 전북·경북 지역 화합과 농어촌 정보화마을의 자립 의식을 고취하는 대표적인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정보화마을전북자치도지회(지회장 이일구)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전북과 경북 지역의 정보화마을 위원장, 프로그램 관리자, 주민 등 120여 명이 완주군을 직접 방문해 자리를 함께했다.

개회식을 시작으로 완주군 경천애인 활성화센터에서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한 특강 및 간담회가 심도 있게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김재 환도마을과 경북 예천 금당살마을의 사례를 공유하며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농어촌 마을이 나아가야 할 비전과 상생 협력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정보화마을이 새로운 지역 경제 성장 모델의 중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은 현재 봉동읍 서두마을과 용진읍 도계마을을 정보화 마을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정보화마을을 통해 지역 특산물 판로 개척, 농촌 체험 관광 등을 추진하며 성공적인 마을공동체 활성화 모델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명칭 변경 '황진장군로' 도로명·인물 홍보 슷폼 제작

남원시는 기존 '서부로'에서 '황진장군로'로 변경된 도로명과 남원 출신의 역사적 인물인 황진 장군을 소개하는 슷폼 영상을 제작했다.

이번 영상은 도로명 변경에 따른 시민 혼선을 최소화하고, 새 도로명인 '황진장군로'의 지역적 정체성을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작됐다.

특히 짧은 시간 안에 핵심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60초 내외의 슷폼 형식을 활용해 도로명 변경 전후 명칭, 변경 구간, 황진 장군 인물 소개 등을 시민들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남원시는 제작한 영상을 남원시청 공식 누리집, SNS, 관내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게시하고, 변경된 도로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남원=김종원 기자

순창군, 공중화장실 대상 불법촬영 예방 합동점검

순창군은 17일 군민참여단과 순창경찰서가 함께 관내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군민들이 공중화장실을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점검에는 순창군과 군민참여단, 순창경찰서 관계자들이 참여했으며, 이용객이 많은 다중이용시설과 공원, 관광지 내 공중화장실을 중심으로 불법촬영 장비 설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점검반은 전과탐지기와 렌즈탐지기 등 전문 장비를 활용해 화장실 내 전장과 벽면, 환풍구, 휴지통 등 불법촬영 기기가 설치될 가능성이 있는 장소를 꼼꼼히 점검했다.

특히 순창공용버스터미널과 일품공원, 전통시장, 민속마을 공중화장실 등 4개소를 대상으로 정밀 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촬영 장비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서와 군민참여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순창군 교육협력지구, 혁신 모델로 '자리매김'

학교·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지역 자원 활용 인재 육성 강화

순창군이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농어촌 교육협력지구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군과 순창교육지원청과 협력해 추진 중인 '농어촌 교육협력지구 지원사업'이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는 물론, 농어촌 교육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며 교육 현장과 학부모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순창군은 올해 총 1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학교, 마을체현기관이 긴밀히 소통하는 교육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본 사업을 본격 가동 중이다.

본 사업은 순창의 문화·인적·물적 자원을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농어촌 학교를 활성화하고 미래 인재

들의 예술적 감수성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학교 간 연계 수업을 지원하는 '이음 교육과정' △퇴직 교원과 주민이 참여해 기초학력을 책임지는 '우리마을 선생님' △지역 문화 유산을 탐방하는 '지금, 순창' △장기 생태 관찰 프로젝트인 '스머딩는 생태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문화예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찾아가는 예술 체험 '해봄' △도심 끝나무 영화캠프 △순창장류축제 주무대에서 끼를 발산하는 '청소년 어울마당'이 더해져 학생들에게 다채로운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

특히, 퇴직 교원, 학부모, 지역 주민 등이 참여하는 '우리마을 선생님' 사업은 정서적 교감과 맞춤형 학습 지도를 동시에 잡아내며 교육공동체 활성화의 모범 사례로 꼽힌다.

지역 자원을 100% 활용한 로컬 교육

도 눈길을 끈다. 민선 8기 공약사업과 연계된 '지금, 순창' 프로그램은 지난해에만 137명의 학생이 참여해 고장의 아름다움을 직접 체험하며 공동체 의식을 키웠다. 이처럼 다채로운 문화·예술·생태 교육은 농촌 지역 학생들의 시야를 넓히고 도농 간 교육 격차를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긍정적인 정책 효과를 거두고 있다.

군은 교육협력지구 사업이 단순한 교육 경비 지원을 넘어, 지역 사회 전체가 교육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선순환 협력 문화'를 정착시키는 선제적 기반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앞으로도 순창만의 특색을 살린 명품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학생들이 지역에 대한 깊은 자부심을 품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임업인 경쟁력 강화...지원사업 접수

산림소득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생산·가공·유통 등 7개 분야

완주군이 지역 임업인의 경영 안정과 소득 향상을 위해 총 7개 분야를 지원하는 '2027년 산림소득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2일부터 7월 10일까지 접수 받는다.

이번 사업은 단기소득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 기반을 확충하고, 노후 시설의 현대화와 규모화를 이끌어 임산물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민생 안정 대책이다.

신청 자격은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완주군 관내에서 임산물을 실제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으로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 사업은 △임산물 상품화 지원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 △임산물 생산단지 구묘화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목재펠릿 연소기 지원 총 7개 사업이다.

특히 임산물 포장재 및 포장박스 지원을 비롯해 유통장비·저장시설·가공

장비 지원, 생산장비 및 작업료 보수, 산양삼 품질검사 수수료 지원 등 임업인의 생산성과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이 포함됐다.

완주군은 신청 접수 후 사업 적정성 검토와 예산안 심의 등을 거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산림소득 지원사업이 임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120민원봉사대, 장마철 대비 안전점검 돌입

저지대·상습 침수구역 배수 점검
불법 현수막 등 위험요인 정비

남원시 120민원봉사대가 다가오는 여름 장마철에 대비하여 시민 안전을 위한 사전 점검작업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6월 15일부터 2주간 진행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장마철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마을안길 및 진입로, 저지대, 상습 침수 구역 등의 배수 시설이다. 봉사대는 배수가 원활하지 않은 구간을 현장에서 즉시 정비하는 한편, 강풍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불법 현수막·광고물

과 안전시설물 정비도 병행하고 있다. 자체 처리가 어려운 전문적인 배수 정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긴밀히 연계해 처리할 방침이다.

그동안 시민들의 일상 속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해 큰 호응을 얻어온 120민원봉사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장마로 인한 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여름철 자연재해는 선제적인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철저한 현장 점검과 순찰 강화를 통해 장마철 시민들



<사진=남원시>

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남원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종원 기자

남원시, 마을리더 양성 '농촌활력학교' 1기 성료

남원시가 시군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마을만들기 단계별 사업 진입을 희망하는 마을리더와 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농촌활력학교 1기(기초과정)'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중간지원조직인 남원시농촌종합지원센터 주관으로 6월 9일, 11일, 16일 총 3일간 농업인상생플랫폼 1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수강생들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총 12시간 동안 밀도 높은 교육이 이뤄졌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주민주도 상향식 마을만들기사업의 이해 △마

을의 유·무형 자원 발굴 및 아카이브 기록 교육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이끄는 리더의 필수 역량 △주민 다수의 의견을 반영한 민주적인 마을회의 진행과 지속 가능한 계획 수립 △진안군 봉곡마을 및 남원시 옥전마을 우수사례 학습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마지막 날에는 총 교육시간의 70% 이상을 출석한 수강생에게 수료증을 수여했다. 수료자에게는 향후 중·급 및 심화과정 개설 시 우선적으로 신청 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며, 센터에서는 참여마을의 공동체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남원=김종원 기자

임실군수직 인수위, 업무보고 시작

민선9기 군정 밑그림 구체화 25일까지 업무보고 진행

민선 9기 임실군수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15일 출범한 데 이어 17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시작하며 새로운 군정 운영 방향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수위원회는 기획감사실을 시작으로 오는 25일까지 임실군 각 실·과·소·담당관 25개 부서 및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수위원회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조직·재정·인사 등 군정 전반의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주요 현안사업과

공약 이행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민선 9기 군정 운영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특히 한득수 임실군수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위한 농촌 기본소득 지급과, 농업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정주 여건 개선 등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주요 정책의 추진 상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향후 군정 비전에 반영할 방침이다.

한득수 당선인은 “이번 업무보고는 임실군의 현재를 정확히 진단하고 미래 발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군민의 목소리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군정 현안을 꼼꼼히 점검하고, 취임과 동시에 안정적이고 속도

감 있는 군정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송기춘 인수위원장은 “당선인을 세심히 보좌하여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군정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현안을 인수위원과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선 9기 임실군수직 인수위원회는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현장행정과 군민 민원 청취, 사회·직능단체 간담 등 다양한 의견 과정을 거쳐 민선 9기 군정 운영 방향을 정립하고 활동 결과를 당선인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제10대 장수군의의회 출범 준비

의원 당선자 오리엔테이션 개최 행사에 참석한 당선자들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당선 축하 인사를 나누며 다음 달 출범하는 제10대 의회의 성공적인 운영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서윤정 의회사무과장은 “이번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당선자들이 의정활동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차질 없는 개원 준비와 제10대 장수군의회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군의의회는 지난 16일 의회 상임위원회실에서 지난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군의원 7명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0대 장수군의의회 의원 당선자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제10대 장수군의의회 개원을 앞두고 당선자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당선자들은 장수군의의회의 조직과 직제, 기본현황을 비롯해 회기 운영 절차와 입법·정책활동에 필요한 지원사항 등을 안내받았다.

또한 재산등록, 겸직신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제도, 의원 신분 및 의무 사항 등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임사회 및 개원식 준비를 위한 사전 협의를 진행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무주군, 귀농인 농촌 정착 지원

농업 창업주택 자금 융자 지원

무주군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을 통해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과 영농기반 마련을 뒷받침한다.

농업창업 및 주거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연리 2%로 융자 지원하는 규모는 농업창업자금의 경우 가구당 최대 3억 원, 주택 구입 자금은 가구당 최대 7천 5백만 원이며 5년 거치 후 10년간 원금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만 6년 이내의 귀농인과 재촌 비농업인, 귀농 희망자로, 귀농인은 도시지역(동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 농촌지역으로 이주, 농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려는 사람이다.

재촌 비농업인은 농촌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최근 5년 이내 영농 경험 없이 하야 하며 귀농 희망자는 도시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올해 무주군으로 전입할 예정이면 신청할 수 있다.

하반기 지원 대상자 접수는 오는 7월 10일까지로, 무주군청 인구활력과 귀농기초팀에서 사전 상담을 받은 후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김성옥 무주군청 인구활력과장은 “귀

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영농기반 구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며 “다만 보조금이 아닌 융자 사업이라는 점, 사업대상자 선정심사 결과와 금융기관의 신용 및 담보 심사에 따라 최종 대출금액이 결정된다는 점 등을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귀농을 준비하고 있거나 농촌 정착을 희망하는 분들이 귀농 농업창업과 주택 구매 지원은 물론, 다양한 사업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주=최의호 기자

무주 최북미술관 기획전, 꽃이 전하는 위로·치유

무주 최북미술관이 “잠시 꽃이 되는 순간” 전(展)을 마련했다. 오는 8월 17일까지 개최 예정으로, 꽃을 소재로 한 한국화와 서양화 작품 36점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 참여 작가는 김주현, 최분아, 최지영 작가로, 각기 다른 조형 언어와 표현 방식을 통해 꽃이 지닌 생명의 에너지와 치유 감성, 그리고 아름다움을 작품에 담아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김주현 작가는 한지 등의 재료를 활용해 어둠 속 빛의 기억과 어머니의 정원을 바탕으로 피고 지는 꽃의 생명력을 표현했으며, 최분아 작가는 ‘결허함의 향기로’ 등 주변에서 마주한 꽃들을 단순화된 구성과 오일 드래핑 기법을 통해 현대적인 조형 언어로 재해석한 작품을 내걸었다.

최지영 작가는 한지 위에 변질을 통해 완전히 드러나지도 사라지지도 않는 꽃의 형상을 삶의 경계와 사람으로 흐르는 감정을 담아 깊은 공감과 사유의 시간을 선사하고 있다.

/무주=최의호 기자

장수군, '2026 장수지역 일곱별 어울림 한마당' 성황리 개최

장수군은 번암초등학교와 번암마을 일원에서 지역 내 소규모 초등학교 학생, 학부모, 농촌유학 관심 가족 등 1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6 장수지역 일곱별 어울림 한마당'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장수군 풀뿌리 교육지원센터(센터장 이정영)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올해로 5회째를 맞았으며 작은학교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매년 추진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장수 농촌유학 설명회’와 함께 진행돼 농촌유학에 관심 있는 도시 가족 30여 명이 참여하며 의미를 더했다.

최훈식 군수는 “작은학교가 가진 맞춤형 교육의 강점과 장수군의 청정 자연환경은 농촌유학의 가장 큰 경쟁력이다”며 “도시 아이들이 장수에서 자연을 벗 삼아 지역 아이들과 함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농촌유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수=최진수 기자

진안군-용담호 수계 8개 시·군, 한우물 공동체 협력 다짐

진안군은 17일 진안고원 치유숲과 진안용담댐 일원에서 진안용담호 수계 8개 시·군 부단체장을 초청해 ‘150만 생명수 진안용담호 수계 부단체장 초청행사’를 개최했다.

진안용담댐은 전북과 충남지역 약 150만 명의 생활·공업용수를 책임지는 핵심 수자원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용담댐 건설로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던 수물민들의 희생과 아픔이 자리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진안용담댐의 맑은 물을 함께 이용하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충청남도 8개 시·군(진안군, 전주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금산군, 서천군)이 ‘한우물 공동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수자원 상생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간 연대와 공동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진안군은 이번 행사를 단순한 초청행사가 아닌, 용담호의 혜택을 함께 누리는 지역들이 수원지역의 가치와 희생을 공감하고 맑은 물 보전과 상생의 책임을 함께 나누는 자리로 마련했다.

참석자들은 진안고원 치유숲에서 치유테라피를 체험하며 진안의 치유자원을 경험하고, 산골예찬 오찬과 정류(淸流) 차담회를 통해 용담호 수질보전 정책을 공유했다.

/진안=전길병 기자

장수군, 양파 줄기절단기 첫 현장 시연 성공

양파기계화 우수모델 육성사업 '본격 성과' 거두어

장수군은 농촌 고령화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양파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한 ‘양파기계화 우수모델 육성사업’이 본격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양파기계화 우수모델 육성사업은 노동집약적인 양파 재배 과정의 기계화를 통해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고 생산비 절감과 작업 효율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군은 지난 12일 양파 재배 농가와 농기계 업체 관계자, 유관기관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기임대 농기계인 ‘양파 줄기절단기’의 첫 가동 및 현장

시연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시연회는 지난해 관내 3개 작목반을 대상으로 양파 정식기와 수확기, 줄기절단기 등 양파 재배 전 과정에 활용되는 기계화 장비 12종 44대를 장기임대 지원한 데 따른 현장 적용 사례로 마련됐다.

행사 참석자들은 본격적인 양파 수확철을 앞두고 현장에 처음 투입된 줄기절단기의 작업 성능과 효율성을 점검하고 안전한 운용 방법을 공유하며 양파 재배 기계화의 성공적인 정착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최훈식 장수군수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농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기계화 장비 활용 현황을 살피는 한편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현장 중

심의 농업 정책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최훈식 군수는 “농촌 고령화와 인력 부족, 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파 농가에 기계화 장비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줄기절단기 첫 가동을 시작으로 정식부터 수확까지 전 과정 기계화 표준모델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장수 농업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은 앞으로도 임대 농기계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밀착 기술지도와 현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소득 향상을 위한 기계화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교육생 모집

16일~25일 교육생 선착순 신청

임실군과 원광대학교 반려동물산업학과(책임교수 이현아)는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옹커(RISE)사업’의 일환으로, 미래 반려동물사업을 이끌어갈 전문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한다.

군은 원광대학교와 협력하여 오는 29일부터 국가자격인 ‘반려동물행동지도사 2급’ 교육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며, 지난 16일부터 오는 25일까지 10일간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 과정은 6월 29일부터 8월 11일까지 오수면에 위치한 오수반려누리 2층 교육실에서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저녁 시간(18:00~21:00)에 운영된다.

특히 이번 교육은 오는 9월 5일 시행 예정인 제3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수업 내용을 구성했다.

반려동물 행동, 의사소통, 훈련 이론을 깊이 있게 다루며, 동물행동지도 실기 및 기본 훈련 실습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도할 예정이다. 수강료와 교재비는 전액 지원되며, 국가자격증 응시는



임실군은 원광대학교와 협력하여 오는 29일부터 국가자격인 '반려동물행동지도사 2급'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사진=임실군>

자율로 개별 부담이다.

교육 신청 대상은 연령과 지역 제한 없이 일반인 및 고교·대학생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모집 인원은 20명이다. 신청은 임실군청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가능하며, 상세 문의로는 원광대학교 RISE사업단으로 하면 된다.

심민 군수는 “상반기에 진행된 반려동물관리사 및 반려견미용사 교육에 이어, 이번 국가자격 과정 역시 지역 반

려동물을 이끌 핵심 인재를 키워내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긴밀한 관학협력을 통해 교육 현장에서 자격 취득까지 연결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뿐 아니라 취·창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임실군이 반려동물산업 메카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2026년 임실N치즈축제 분화국 정식 완료

10월 8일~11일 임실N치즈축제

임실군은 오는 10월 개최되는 ‘임실N치즈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난 10일, 축제장 전역에 배치될 화분국와 정식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올해 생산 규모는 사각 화분 20,700개, 원형 화분 23,000개 등 총 43,700개이며 노랑, 핑크, 빨강, 보라 등 7개 품종의 분화국이 생산되어 축제장에 전시될 예정이다.

특히 군은 지난해 이상 고온과 긴 장

마 등 기후변화로 인한 생육 부진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는 기상 여건과 개화 시기 등 전반적인 상황을 반영하여 개화가 비교적 안정적인 품종을 집중 배치했다.

아울러 위탁 농가를 통해 축제장에 배치될 국화가 최적의 상태로 자랄 수 있도록 철저한 생육 및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올해 임실N치즈축제는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개최된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 농작업 안전재해예방...현장 점검

장수군은 지난 15일 지역 내 농가 현장을 방문해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지원 등 농업인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최준열)과 함께 농작업 안전컨설팅 이후 개선 조치가 이뤄진 농가를 둘러보고 농업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관리 방안 등에 농업인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날 방문한 농가에서는 1차 농작업 안전컨설팅 위험성평가 현장조사를 통해 발굴된 위험·유해요인 가운데 미 개선 사항에 대한 조치가 진행됐다.

주요 조치 내용은 농기계 안전주의 안내판 부착, 온열질환 예방용품 지원 등으로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개선 활동이 추진됐다.

장수군은 3월부터 10월까지 지역 내 110농가를 대상으로 농작업 안전컨설팅을 총 3회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까지 실시한 1차 컨설팅에서는 523건의 위험·유해요인을 발굴했으며 6월부터 8월까지 진행되는 2차 컨설팅에서는 개선 여부를 점검하고 추가 위험요인을 발굴할 예정이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 관내 운수종사자 안전의식 높여

운수종사자법정보수교육 실시

임실군은 지난 16일 관내 여객 및 화물 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대인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교통문화연구소 주관으로 '2026년도 운수종사자 법정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통문화연구소가 주관한 이번 교육은 임실군청 3층 문화강좌실에서 진행되었으며, 관내 버스, 택시, 영업용 화물차 운수종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안전하고 친절한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필수 지식을 습득했다.

이날 교육은 △교통신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운전 지침 및 최신 교통관련

법규 속지, △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 탑승 시 친절 응대 서비스, △차량 화재나 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방법 등 실무 중심의 강의를 진행했다. 교육 과정이 끝난 후에는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설문조사와 함께 수료식을 끝으로 알차게 마무리했다.

아울러 군은 이번 교육 현장을 찾은 화물 및 버스·택시 운수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안내물을 배포하고 간단한 현장설명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고의적인 부정수급이나 단순 부주의로 인한 행정처분을 사전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장수=최진수 기자



완주 봉동읍지사협, 어르신들 꽃바구니 만들기 체험

완주군 봉동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최근 봉동읍 행정복지 센터에서 20명의 저소득 어르신과 함께 꽃바구니 만들기를 하며 일상을 벗어나 따뜻한 위로와 치유의 시간을 나눴다.

어르신 문화체험은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평소 문화생활을 접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의 소외감과 고독감을 해소하고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해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꽃바구니 만들기로 채워졌다. 행사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각자 마음에 드는 다양한 꽃을 골라 직접 바구니를 채우고 서로 담소를 나누며 특별한 추억을 쌓았다.

꽃꽂이 강사는 재능기부로 어르신들의 활동을 세심히 지원했으며, 이기성 (사)완주군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행사의 좋은 취지에 동참해 화제를 후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김제 백구면지사협, '짜장면 데이' 봉사활동

김제시 백구면 행정복지센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강인)가 17일 마전마을 경로당에서 마전마을과 난산마을 어르신 70여명을 대상으로 '짜장면데이' 나눔 행사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짜장면데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고 이웃간 정을 나누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표 나눔 행사다. 협의체 위원들은 이날도 이른 아침부터 재료를 준비하고 직접 짜장면을 조리해 어르신들에게 정성껏 대접했다.

이번 행사는 마전마을 경로당에서 진행됐으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현장 참석이 어려운 난산마을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난산마을 경로당으로 짜장면을 직접 전달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따뜻한 식사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마을까지 찾아와 정성껏 만든 짜장면을 대접해주시니 정말 고맙고 든든하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박순덕 여사, 폐지 주워 정읍시에 장학금 기탁

"어린 시절 못 배운 한, 고향 후배들이 풀어주길"

평생 폐지를 주워 모은 돈으로 6년째 고향 후배들을 돕고 있는 박순덕 여사가 지난 15일 정읍시 칠보면에 장학금을 기탁해 학생 29명에게 총 1250만원이 전달됐다.

칠보면은 이날 행복이음센터 1층 대강당에서 학생과 학부모 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2026년 박순덕 여사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현재 읍산에 거주하는 박 여사는 행사에 직접 참석해 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건넸다.

칠보면 수청리가 고향인 그는 어려운 가정 형편 탓에 학업을 이어나가지 못한 어린 시절의 아쉬움을 간직하고 있다. 이를 달래고자 평생 폐지와 강통을 주워 알뜰하게 모은 돈을 성금으로 기탁하며 고향 학생들을 향한 나눔을 실천하는 중이다.

박 여사는 올해도 학생들을 위해 700만원의 장학금을 쾌척했다. 이번 기탁을 포함해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여섯 차례에 걸쳐 2억 4350만원의 성금을 지역 사회에 내놓았다.

박순덕 여사는 "어린 시절 공부하고 싶었던 마음을 다 이루지 못



했던 아쉬움이 컸던 만큼 고향의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꿈을 향해 힘차게 나아 /정읍=김정인 기자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 완주군에 1,000만원 기탁

임직원들 뜻 모아 기부

한국전력 전북본부 임직원들이 17일 완주군청을 방문해 고향사랑 기부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기부는 한국전력 전북본부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마련한 것으로,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과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한 뜻깊은 나눔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전력 전북본부는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실천하고 있다.

유여일 본부장은 "임직원들이 뜻을 모아 기부에 참여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공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정읍 고부면·사회복지과, 농촌 일손 돕기

정읍시 고부면과 사회복지과 소속 직원 20여 명이 지난 16일 영농철 인력난을 겪는 지역 농가를 돕기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이번 자원봉사는 고부면 반응마을에서 사과·대추를 키우는 이영용 씨 농가에서 진행됐다. 직원들은 일손을 보태려 간 자리가 도리어 농가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작업에 필요한 간편한 옷차림을 갖추고 장갑, 모자, 마실 물까지 직접 챙겨 현장에 도착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오후 늦은 시간까지 부지런히 과수나무 주변을 정리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도움을 받은 이영용 씨는 "사과 열매를 숙여내고 대추나무 순을 따야 하는 시기에 사람을 구하기 힘들어 걱정이 컸다"며 "찌는 듯한 더위에도 직원들이 오후 늦게까지 내 일처럼 열심히 도와줘 정말 큰 힘이 됐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고창 종합민원과, 관내 농가에서 구슬땀

고창군 종합민원과(과장 양미옥)가 직원 20여 명이 지난 16일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내면(블루베리)·신림면(복분자) 농가 농촌 일손돕기에 나섰다.

고창군은 농촌 일손돕기를 통해 영농철 적기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했다.

도움을 받은 농가에서는 "바쁜

업무와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직접 찾아와 열심히 도와줘 큰 힘이 됐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양미옥 고창군 종합민원과장은 "최근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대상으로 꾸준한 일손돕기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남원 주생면, 포도 과수원 찾아 농촌 일손 도와

남원시 주생면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16일 주생면 도산리 소재 포도 과수원을 찾아 농촌 일손 돕기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일손 돕기에는 주생면을 비롯해 건축과, 상하수도사업소 직원 등 30여 명이 참여했으며, 포도 재배에 중요한 결손 따기와 가지치기 작업을 함께하며 농가의 일손 부담을 덜었다.

참여 직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구슬땀을 흘리며 작업에 임했다.

이정찬 주생면장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촌의 노동력 부족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가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농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역 농가와 상생하는 현장 중심의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원=김종민 기자



군산 나운2동, 저장강박 위기가구 주거환경 개선 나서

군산시 나운2동 행정복지센터(동장 남귀우)는 17일 관내 저장강박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통장단 및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주거환경 개선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인 A씨(70대)는 집안에 방치된 쓰레기와 물건들로 인해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었으며, 특히 건강이 급격히 악화돼 외부 활동이 제한된 상태였다.

이번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데에는 통장의 역할이 컸다. 통장은 주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던 중 대상 가구의 급격한 변화를 파악해 행정복지센터에 제보했으며, 이후 1년여 동안 지속적인 가정방문과 설득을 통해 이번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이날 나운2동 통장단과 자원봉사자 등 10여 명이 참여해 집안 내부에 방치된 생활쓰레기와 폐기물을 수거하고 찌든 때를 제거하는 등 구슬땀을 흘렸다.

/군산=지승길 기자



"우리의 강이 깨끗해야 우리 아이들도 건강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강물에 무관심할때, 강물은 소리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강물의 비명에 귀 기울이고 행동할때, 비로소 맑은 강과 건강한 미래를 다음세대에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一事一言〉



30%대로 내려앉은 민주당, 민심의 경고를 오만으로 흘려듣지 말라

최준호
전북타임스 대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심상치 않은 민심의 경고를 받고 있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정당 지지율은 30%대로 내려앉았다. 여전히 이재명 정부의 국정 지지율이 과반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더욱 의미심장한 결과다. 국민은 정부와 여당을 분리해 평가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더 큰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정권 출범 초기 국민이 민주당에 기대했던 것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책임 있는 개혁 추진이었다. 그러나 최근 민주당의 모습은 민생과 정책 경쟁보다 당내 권력구도와 계파 갈등, 그리고 지방선거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더 부각되고 있다. 집권당이 국정 의제 추진이 아니라 정치적 부담 요인으로 비쳐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은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전북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제기된 공천 논란과 출세우기 비판은 민주당이 얼마나 지역 민심과 괴리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었다.

공천은 정당의 권한이지만 주민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그러나 특정 계파 중심의 정치, 중앙당 중심의 일방적 의사결정이라는 비판이 확산된 것은 민주당이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대목이다.

더 큰 문제는 지도부의 위기 인식이다. 지지율 하락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다. 국민이 보내는 정치적 경고장이며 변화 요구다.

그럼에도 민주당 지도부는 민심의 경고를 성찰의 계기로 삼기보다 일시적 현상으로 치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당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는 순간 지지율 하락은 일시적 조정이 아니라 구조적 이탈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치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야당의 공격이 아니다. 스스로를 견제하지 못하는 오만이다.

역대 정권이 높은 지지율에 취해 민심의 변화를 읽지 못하다가 몰락한 사례는 수없이 많다. 민주당 역시 예외일 수 없

다. 특히 호남과 전북은 민주당의 텃밭이지만 결코 특정 정치세력의 소유물이 아니다. 지지를 보내는 이유는 충성심 때문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기대 때문이다.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당권 경쟁이나 세력 확장이 아니다. 왜 국민이 여당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는지 냉정하게 돌아보는 일이다. 민생보다 권력이 앞서고, 소용보다 독선이 앞서며, 책임보다 계산이 앞서는 순간 국민은 언제든 지지를 거둘 수 있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원한다면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은 야당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다. 최근의 지지율 하락은 실패의 성적표가 아니다. 아직 돌이킬 수 있을 때 국민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다. 그 경고마저 외면한다면 오늘의 30%대 지지율은 바닥이 아니라 더 큰 추락의 출발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 독자투고 |

전화하는 보이스피싱, 시민의 경계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단순히 수사기관이나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전화에 그쳤다면, 최근에는 악성 앱 설치 유도, 가족 목소리 AI 조작, 범원 등기 반송 안내, 미신청 카드 배송 안내, 온라인 직거래를 악용한 자금세탁 등으로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어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최근에는 검찰·경찰·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해 “명의를 도용됐다”, “범죄에 연루됐다”,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위협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수법이 반복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하거나, 심지어 숙박업소에 혼자 머물도록 요구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수

사를 이유로 통화를 강요하거나 모델·호텔 투숙을 지시하지 않으며, 이와 같은 요구는 곧바로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가족을 사칭하는 범죄도 매우 교묘해졌다. 자녀의 이름과 학교 정보를 언급하고, AI로 조작한 음성으로 들려주며 납치나 사고를 방지해 송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즉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다. 먼저 전화를 끊고, 가족이나 학교, 지인에게 직접 연락해 실제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침착한 확인은 범죄를 무력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또한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를 클릭하게 하거나 특정 앱 설치를 유도하는 방식도 주의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기존 은행 앱이나 통화 앱 삭제 등을 요구하는 행위 자체가 악성 앱 설치 수법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악성 앱이 설치되면 문자, 통화 내역,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고, 공식 기관 번호로 보이도록 발신번호가 조작될 위험도 있다. 등기 반송, 카드 배송, 세금 환급 등 일상적인 안내로 위장

한 문자나 메일주소 링크 클릭 전에 반드시 공식 기관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온라인 플랫폼 거래에 끼워 넣는 자금세탁 수법도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026년 2월, 금 직거래를 가장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세탁하는 범죄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대면 전부터 계좌번호를 요구하거나, 거래 게시글을 미리 내리라고 요구하는 경우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예방의 핵심은 어렵지 않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끊고, 링크는 누르지 말며, 돈을 보내기 전 반드시 공식 창구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다. 어떠한 명목으로도 선입금이나 타인 계좌 송금을 요구하면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 한 분 한 분의 예방 실천이다. 의심되면 끊고, 확인하고, 즉시 신고하는 습관이 소중한 재산과 일상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이다.

김재경철서경무과
경위 이지민

김재경철서경무과 경위 이지민

사설

200조 공약의 시험대, 숫자가 아닌 신뢰를 지켜야 한다

민선 9기 전북특별자치도정을 이끌 이원택 도지사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200조 원 규모 AI·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이 도정 출범도 전에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선거 과정에서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을 상징하던 대표 공약이 현실성 논란에 휩싸인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문제의 본질은 200조라는 숫자 자체에 있지 않다. 도민들이 기대했던 것은 거대한 숫자가 아니라 전북 경제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비전이었다. 그러나 공약의 핵심 전제로 거론됐던 대규모 반도체 투자 유치 가능성이 낮아지고, 인수위원회 내부에서조차 공약 수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은 도민들에게 적지 않은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선거는 약속의 과정이다. 특히 도지사 후보가 제시하는 공약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향후 도정을 운영할 정책 계약서와도 같다. 따라서 선거가 끝나자마자 공약의 현실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다면 도민들은 당연히 그 근거와 추

진 가능성을 묻게 된다. 공약이 어떤 검토 과정을 거쳐 마련됐는지, 기업과의 교감은 어느 정도였는지, 실제 실행 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

그렇다고 지금 단계에서 성급하게 실패를 단정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대응이다. 당선인과 인수위는 현실 여건 변화에 따라 계획을 보완할 수 있다. 문제는 그 과정이 투명해야 한다는 점이다. 공약을 유지할 것이라면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제시해야 하고, 수정이 불가피하다면 그 이유와 대안을 도민들에게 솔직하게 설명해야 한다.

민선 9기 도정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도민의 평가는 이미 시작됐다. 전북이 필요한 것은 허황된 장밋빛 청사진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성장 전략이다. 거대한 숫자가 주는 화려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약속에 대한 책임감과 신뢰다. 이원택 당선인이 지금 보여줘야 할 리더십 역시 공약의 규모가 아니라 공약을 대하는 책임 있는 자세일 것이다.

▲오늘의시

비 그친 새벽 산에서 / 황지우

비 그친 새벽 산에서
하지도 않으리
산을 내려오면
산은 하늘에
두고 온 섬이었다

나는 아직도
그리운 사람이 있고
산은 또 저만치서
등성이를 웅크린 채
날기 위해
절벽으로
달려가는 새처럼

솜 꽃한 짐승처럼
더운 김을 뿜는다
내 희망의
한 가운데에는
텅 비어 있었다

시인 약력 : 1952년 전남 해남 출생. 서울대학교 미학과를 졸업하고 서강대학교 대학원 철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1980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입선하고 '문학과의성'에 시를 발표하며 등단했다. 시집으로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게' 등이 있다. 제3회 김수영문학상과 제3회 현대문학상, 2006년 육관문화훈장 등을 수상했다.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11년 10월01일 창간 / 등록번호 전북 가-00022(발행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www.jeonbuktimes.co.kr

발행·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사 010-96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826-6049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북의 곁에서 전북의 이야기를
전북타임스가 함께 합니다.

광교문의 282-9601 기사제보 282-9600 신문구독 282-9603 https://www.jeonbuktimes.co.kr



김제시, 교육·청소년·가족 정책으로 시민 삶의 질 높인다

배움이 일상이 되고 돌봄이 권리가 되는 도시 김제

김제시가 교육과 돌봄을 중심으로 생활 밀착형 정책 추진에 나섰다. 학교와 지역이 함께 사용하는 교육 공간 조성부터 평생학습 확대, 청소년 활동 지원, 여성 일자리 연계,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까지 분야도 폭넓다.

단순한 지원사업 확대를 넘어 학교와 지역사회, 배움과 돌봄을 유기적으로 잇는 데 초점을 맞춰 특정 계층이 아닌 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기반 정책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 교육공간부터 장학지원까지... 배움 기반 넓힌다

김제시와 김제교육지원청은 2025년 금구초·중학교 학교 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109억 원을 투입,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문화·체육·복지 공간 조성에 나섰다. 교육·문화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금구 지역에 새로운 생활 인프라가 들어서는 것으로, 학교가 학생들만의 공간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공간으로 거듭나게 된다.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 지원 체계도 개선됐다.

김제사랑장학재단은 올해 하반기부터 지평선학당 수강 대상을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하고, 2026학년도부터는 수시 등 다양한 전형 입학제도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편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중·고·대학생 704 명에게 1억 8천여만 원의 장학금액을 지급했으며, 지난 말에는 장학생 250명을 추가 선발했다.

■ 찾아가는 평생학습... 배움의 문턱 낮춰

교육 기반이 학교 안에서 다져지는 동안, 배움의 기회는 학교 밖으로도 넓어지고 있다.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인 '달리는 모두 배움터'는 체험형 학습 버스가 읍·면·동 소외지역 80여 개 마을을 직접 찾아가다며 주민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이동이 어렵거나 교육 접근성이 낮은 주민들에게 생활권 안에서 평생학습 기회를 여는 사업으로, 거리와 이동 문제로 배움에서 멀어졌던 이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로 다가오고 있다.

온라인 환경도 갖춰져 있어 시민들은 스마트폰 하나로 22개 분야 761개 교육 강좌를 언제 어디서나 수강할 수 있으며, 2006년부터 이어온 지평선아카데미는 731회째를 맞아 연간 2,500여 명이 참여하는 대표 시민 교양강좌로 자리를 굳혔다. 최근에는 디지털 모두배움터와 공유학습 플랫폼, 전시코육장이 새로 문을 열었고,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온통 학습커뮤니티존' 구축도 추진 중이다.

■ 청소년 활동·공간 지원 강화... 성장 환경 넓힌다

평생학습이 전 세대를 아우르는 가운데, 청소년을 위한 지원도 활동 기회와 공간 두 축에서 동시에 확대되고 있다. 13~18세를 대상으로 한 청소년드림카드 지원사업은 학원과 서점, 체육시설 등 다양한 가맹점 이용과 연결되면서 청소년의 문화·교육 활동 참여를 돕는 동시에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더하고 있다. 9~24세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위생용품 구입비 지원도 함께 추진되며 청소년 건강권 보

장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청소년종합센터는 전북도 청소년수련시설 기능 보강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37억 원 규모의 리모델링을 앞두고 있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공연·체육 복합공간과 ICT·VR 체험공간, 1인미디어 제작실 등이 조성되어 청소년들이 더욱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전망이다.

■ 여성친화 기반 다지고 경제활동 지원 확대

여성을 위한 정책 기반도 한층 탄탄해지고 있다. 김제시는 2025년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지정되며 성평등과 포용의 도시로 나아가는 기반을 마련했다. 시민참여단을 중심으로 지역 생활환경 모니터링과 정책 제안 활동이 이어지고 있으며, 시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성평등 교육·컨설팅, 비영리단체와 연계한 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도 함께 추진되면서 생활 속 성인지 정책 환경 조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러한 정책 기반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에도 이어진다.

김제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직업교육훈련과 집단상담 프로그램, 여성 인턴십 지원사업 등을 운영하며 2025년 이후 4천여 건의 구인·구직 연계를 통해 1천200여 명의 취업을 지원했다. 직업교육훈련 과정의 취업률은 70%를 웃돌며 경력단절 여성 등의 사회 복귀를 실질적으로 돕고 있다.

■ 돌봄 공백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가족 구조와 생활 방식이 다변화되면서 돌봄 수요도 함께 커지고 있다. 신축 이전한 가족센터에서는 부모·자녀 소통교육과 가족상담,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은 평일 야간과 주말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범위를 넓혔다.


아빠 육아 클래스와 조부모 육아교육, 숲체험 프로그램 등 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기존 돌봄 체계의 빈틈을 메우기 위한 '김제형 365일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조성도 추진 중이다. 맞벌이·야간근무·병원 진료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시간과 이용 사유 제한 없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틈새 돌봄서비스로, 이용료를 시간당 1,000원대로 낮춰 경제적 부담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이후에는 이주 배경 아동 지원사업 '프로젝트 169'를 통해 의료·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서고 있으며, 초등학교 앞 어린이 안심 승강장 조성도 예정되어 있다.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한 방과후 돌봄, 야간연장 돌봄센터 운영,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와글와글 움직이는 놀이터' 조성까지 더해지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힘이 모아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육과 돌봄 분야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며 "어린이부터 청소년, 경력단절 여성, 다문화가족까지 각 계층의 필요에 맞는 지원을 강화하고 촘촘한 돌봄체계를 갖춰 시민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환경을 만들어가겠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계=온봉기 기자





언제 어디서나 즉시 사용가능한 수동식 심폐소생기



안전에 일상을 더하다